안녕하세요, 전 익명의 사람이에요.

요즘 제게 고민이 있어요. 이런 고민도 이곳에서 들어주나요? 뭐, 안 들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할 곳이... 이곳 밖에 없네요.

전 최근에 물건을 훔쳤어요. 네, 알아요. 나쁜 짓이라는 거. 하지만 전 정당한 일을 했다고요. 물건을 훔쳤는데 웬 정당함이라고요? 음, 말하자면 긴데...

그냥 말할게요. 어차피 무엇이든 들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남자. 그러니까 제 남편을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에 대해 말해야겠군요. 음, 전 우연히 어느 가게에서, 그러니까 작은 유리공예품을 파는 가게였어요.

제 취미는 돈이 생길 때마다 작은 유리 공예품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걸 굳이 왜 사냐고요? 예쁘니까요. 유리로 만들어져서인지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예뻐요. 크기도 작아서 집에 장식해놓으면 그냥 그걸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죠.

어쨌든 그날은 토끼모양 공예품을 사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쎄,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게요?

어쩌긴요 사야죠. 어쨌든 그걸 사려고 집어든 순간 누군가의 손이 덥석 잡았아요.

네, 모두 같이 잡은 거예요.

“어...”

당황해서 시선을 드니 남자였어요. 그것도 아주 잘생긴 남자요. 여태껏 길거리나 무도회를 돌아다녀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요? 저를 보는 눈빛, 눈동자부터 시작해서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매끈한 입술까지. 한마디로 전 마치 반한 것처럼 그를 봤어요.

그때였어요. 그 남자가 씨익 웃으면서 공예품을 들고 갔죠. 그제야 전 정신을 차려서 말했어요.

“그거 제건데요.”

“음, 제가 먼저 봤는데요.”

“하지만...”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공예품을 내밀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드리면 저랑 만나시겠습니까?”

“네?”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요.”

이상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걸 느끼다니. 하긴 저도 그 남자의 외모를 모고 느끼긴 했어요. 하지만 딱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공예품만 들고서 계산대로 향했죠.

“100 말크입니다.”

주근깨가 꽤 많은 권태로운 알바생은 높낮이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전 서두르지 않고 돈을 꺼냈어요.

그리고 바로 가게를 나갔죠. 그러나 그 남자가 저를 붙잡았어요.

제가 의아하게 보자 남자가 웃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람의 웃음이 그렇게 빛날 수가 있구나. 아, 미모가 무기가 될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죠.

남자는 제가 멍하게 보자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어요.

“생마르크 거리의 4번가 식당 어떠십니까?”

“...”

“그럼 그때 1시에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나갔게요 안 나갔게요?

나갔어요. 네, 전 그런 잘생긴 남자는 처음이었고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은 만나 봐도 괜찮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 남자는 저한테 토끼 공예품도 양보해줬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저도 손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곳에 갔고, 그와 얘기해보니 의외로 말이 잘 통했어요. 웃을 때도 적당히 알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전 보통 사람이 끌릴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끌려요. 바른 사람이요. 뭐, 저한테 없는 부분을 그 사람이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전 그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 남자는 결혼을 하고나서도 저한테 잘해줬어요. 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제가 물건을 훔쳤다는 얘기로 돌아가야겠네요. 그 물건은 아티나 제국의 보물이에요. 그럼 황궁 안 깊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있었게요?

뇌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배가 터질 것 같은 트레이트 귀족의 저택에 있었어요. 그 물건을 다시 원래 황궁으로 돌려놓아야했죠. 이쯤에서 저의 진짜 직업을 밝힐게요. 뭐, 익명보장이라고 했으니 믿을게요. 전 온갖 의뢰를 받고 움직이는 사설 보물사냥꾼이에요. 사실 보물 말고도 여러 의뢰를 많이 받아요.

애초에 보물은 별로 없고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전 적당히 머리가 돌아갔고 무엇보다 상황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전 주로 사람들 사이의 비밀스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거나 불륜한 상대의 증거를 잡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의뢰받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씁쓸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죠.

어쨌든 여러 잡일을 하던 저에게 어느 날 아주 커다란 의뢰가 들어왔어요. 바로 황태자 전하의 의뢰였죠.

그분은 직접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아랫사람을 시켰어요. 비서나 뭐 그 정도의 사람이 제 의뢰소에 찾아왔어요. 묵직한 갑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오길래 전 그 사람들이 절 잡아가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워낙 비밀스러운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보물 의뢰를 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겨우 안심했어요. 심장이 뛰기도 했죠. 오랜만에 보물 의뢰였으니까요.

“무슨 보물이죠?”

“원래 황궁에 있던 보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쯤에서 전 제가 하려는 일이 꽤 복잡하고 그걸 지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렴풋이 짐작했죠. 그쪽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런 건 어렴풋이 깨닫기 마련이거든요.

전 그 의뢰를 수락했어요. 돈도 많이 주고 무엇보다 그런 큰일은 처음이라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우선 그 물건은 잘 훔쳐서 그분께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 제 일이 꼬이게 시작했어요.

제가 하려던 일마다 교묘하게 누군가 막는 것처럼 안 됐어요.

쎄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전 그때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전의 의뢰를 겨우 완수하고 제 주변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 엘리너 님 이거 엘리너 님 남편 이름 아니에요?”

“남편이요? 잘못 봤겠죠. 그 이름이 왜 거기에...”

전 온갖 기록의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봤어요.

[드레이드 핀 레베이트]

남편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약간 풋풋해 보이는 남편의 사진이었고요.

그건 틀림없이 제 남편이었어요.

왜 남편이 거기에 있을까요? 왜 제 일을 그렇게 방해할까요?

그 후부터 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 아니,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평소 남편은 건실한 은행원으로 저한테 늘 잘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도 그는 제게 변함없이 웃고 잘해줬어요.

그 이름을 잘못 봤을 거야. 아니, 닮은 사람일거야.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젠 왜 내게 이렇게 잘해줄까...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었어요. 거기다 이젠 이 남편이란 사람이 정말 평범한 은행원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서류에 의하면 그는 막대한 자산가였거든요. 온갖 상단과 무역선, 그리고 이 거리의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였어요.

보통 은행원의 월급으로는 그런 자산을 갖기가 어려워요. 타고난 부자는 모를까.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 제게 말했어요.

“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모두 저를 버렸거든요.”

결혼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땐 무척 마음이 갔어요. 이미 그땐 제가 그 사람한테 많이 빠져서 얼른 그와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그런데 이젠 그 말부터 의심이가요.

대체 제 남편은 누굴까요. 사실 전 남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가 제게 다정하고 그의 직업이 은행원이라는 것 정도. 1년 반 동안 아무 의심이 없다가 이제야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엘리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어쨌든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러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놓았다. 이렇게 털어 놓는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저 이런 고민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모두 한다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착각도 유분수지! 하지만 그 착각이라는 건 꽤나 신경 쓰이고 정신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엘리너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생마르크 거리는 꽤 바빴다. 커다란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바쁘게 뛰어가는 사람과 여유롭게 상대방과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 등 모두 늘 보던 일상 그대로였다.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 전만 해도 나도 똑같았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수록 엘리너는 머리가 더 울리는 느낌이었다. 오히려 이젠 이전과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여전히 다정한 남편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이 불쑥 드는 것이다.

그때 멀리서 경쾌하게 종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너는 멍하게 있다가 헐레벌떡 거리의 중앙으로 걸었다. 사람을 가득 실은 전차가 거리의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엘리너는 전차의 손잡이를 잡으며 가볍게 몸을 실었다. 전차는 곧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엘리너는 주변 풍경을 보며 멍하게 생각에 잠겼다. 날쌔게 달리는 전차는 엘리너의 머리를 마구 흩트렸다.

어지럽게 날리는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엘리너의 머릿속은 고민으로 가득했다.

‘드레이드에게 이 일을 다짜고짜 말할까? 아니면 조금 지켜볼까...’

만약 다짜고짜 말한다면?

그럼 엘리너는 적어도 속이 시원할 것이다. 내 일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거기에서 당신의 사진과 이력이 나왔다면서.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드레이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황할까 아니면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잡아뗄까. 여태껏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걸 보면 잡아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잘못된 결과였다면?

그러니까 엘리너의 조수가 잘못 조사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럼 그렇게 남편을 의심한 건 지나친 비약이었다.

하지만 잘못 될 리는 없었다. 엘리너도 몇 번을 조사했고, 그 결과는 똑같았다. 일을 교묘하게 방해한 사람 중 가장 끝에는 드레이드가 있었다.

엘리너는 꺼림칙한 기분을 느꼈다. 그가 교묘하게 자신의 일을 방해했다면 다짜고짜 말하는 것보다 그를 조심스럽게 조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

무엇보다 엘리너는 드레이드에 대해 잘 몰랐다.

웃기는 일이었다. 1년 반 동안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에 대해 잘 모르다니.

'내 잘못도 있는 건가.'

어쩌면 드레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한 것이 문제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엘리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없이 다정하고 자신에게 잘해줬는데 그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럼 그게 다 연기였던 건가?

만약 그 모든 게 연기였다면...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한 게 모두 연기였다면?

엘리너는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그 생각을 집어치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연기를 1년 반 동안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그게 다 연기라면 이젠 드레이드가 무서워질 지경이었다.

‘그래도 늘 나한테 잘해줬는데.’

결혼기념일은 물론 생일이나 사소한 축하까지 신경 써 준 남편이었다.

엘리너는 그쯤에서 생각을 멈췄다. 더 생각을 한다면 끝도 없는 의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알아보는 게 낫겠지.’

다짜고짜 물어봤자 지금 상태에서 드레이드는 잡아 뗄 것이 분명했다. 여태껏 드레이드는 그 모든 걸 숨기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과연 말해줄까?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순 없었다. 끝도 없이 커지는 의심을 어느 정도 잠재워야 이 상태에서 미치지 않을 것 같았다.

엘리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다.

‘만약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면? 내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거짓말이었다면?’

그러나 그건 진실을 알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었다. 적어도 엘리너는 남편을 사랑했다. 그러니 그를 조금이라도 믿고 싶었다. 그 모든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말이다.

그래서 엘리너는 지금이라도 남편을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몇 걸음 걷자 곧 하얀 저택이 나왔다. 신혼집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 저택도 값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당시에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이곳에 다 썼다고 말했었다. 엘리너는 남편이 건실한 은행원으로 착실하게 산 것 같아서 그저 그 말에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하얀 석조 저택은 보기에도 꽤 값이 나가보였다. 아무리 은행원 월급으로 착실하게 모았다고 해도 더구나 제라크 거리는 중산층이 사는 거리였다. 막대한 부호들이 사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축이었다. 무엇보다 이 거리는 수도와 가까워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다.

문득 의뢰인을 만났을 때 나눴던 말이 생각났다.

“어머, 엘리너 님, 제라크 거리에 사세요?”

“네, 혹시 그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요즘 제라크 거리는 값이 상당하잖아요! 생각보다 능력 있는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엘리너는 민망한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제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산 곳이에요.”

“결혼 전에 샀다고요?”

“네, 왜요?”

“음, 제가 늘 거기에 매물을 구하려고 해도 그곳은 잘 안 나던 곳이었는데...”

엘리너가 궁금하게 보자 의뢰인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도 거기에 무척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매물을 구하려고 해도 거기에 껌이라도 붙어 놓은 건지 매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그곳에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더 안 팔려고 해요. 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 당시 엘리너는 그저 그랬거니 하며 웃었다. 평소 엘리너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었다. 밀린 의뢰에 바쁘기도 했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매물이 안 나오던 곳에 드레이드는 어떻게 샀을까. 만약 결혼 전에 샀다고 해도 10년 전 같으면 그는 20대 초반이었다. 그 당시에 그는 은행원도 아니었을 것인데, 평범한 20대 초반이 이런 저택을 샀을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드레이드는 평범한 은행원은 아닐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은행원을 하기 전에 필시 무슨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저택을 못 사는 게 뻔했다.

왠지 모르게 엘리너는 불안했다. 남편의 과거. 어쩐지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릴 것 같다는 예상이 들었다.

그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다. 엘리너는 한숨을 내쉰 뒤 주린 배를 움켜잡았다. 배가 고파서 생각을 더 이어갈 수도 없었다.

‘...다른 여자만 안 나오면 다행이겠다.’

그렇게 엘리너는 무거운 머릿속을 대충 정리하고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안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콧속을 간질였다.

“왔어요?”

문과 가까운 부엌에서 드레이드가 돌아봤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바로 음식을 준비한 것 같았다.

엘리너는 그를 보며 말했다.

“일찍 왔네요.”

"일이 빨리 끝나서요."

드레이드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엘리너는 배가 많이 고팠기에 가볍게 옷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미 부엌에는 저녁 한 상이 차려져 있었다.

“많이 배고프죠? 조금만 기다려요. 다 했어요.”

드레이드는 살짝 돌아보며 눈웃음을 지었다. 엘리너는 그 옆에 서서 그를 관찰했다. 요리를 한다고 살짝 걷어 올린 소매에 단단한 팔이 눈에 보였다. 탄탄하게 솟은 핏줄 사이로 그는 가볍게 팬을 잡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앞에 있는 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다 엘리너가 옆에 있는 걸 알았는지 살짝 돌아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심히 잘생긴 미소였다. 누구나 그 미소를 보고 웃음을 지을 만한. 엘리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엘리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제가요?”

“네, 오늘 같은 미소는 처음 봐요.”

그러곤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볼에 입을 맞춘 뒤 웃었다. 엘리너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살짝 미소를 지었다. 미소를 지으면서도 엘리너는 어쩐지 찜찜한 기분을 느꼈다. 드레이드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그게 엘리너를 더 찝찝하게 만들었다.

“엘리너.”

드레이드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엘리너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시선을 틀었다. 그는 엘리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엘리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요?”

엘리너가 묻자 드레이드는 잠시 엘리너를 바라보다 싱긋 웃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어쩐지 싱거웠다. 뭘 말하려다 말았을까. 그때 예전에 그와 함께하던 생각이 났다. 예전 같으면 엘리너도 드레이드가 자신의 볼에 입을 맞췄다면 그녀도 드레이드의 볼이나 입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지금 엘리너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그가 의심스러운데 예전처럼 그렇게 행동하기가 껄끄러웠다.

다 연기일 수 있잖아.

아직 판명된 건 아니지만 의심이 그렇게 드니 어쩔 수 없었다. 엘리너는 드레이드를 잠깐 보다가 식탁에 포크와 숟가락을 놓았다. 그러곤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봤다. 전과 다르게 저택이 조용했다.

“그러고 보니 베케이드 부인이 안 보이네요.”

평소 이 저택에서 청소나 음식을 봐주던 베케이드 부인이었다. 베케이드 부인은 말소리가 크고 성질이 빨라서 조용한 저택을 활기 있게 만들어줬는데 오늘은 그녀가 보이지 않아 어쩐지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아, 일찍 퇴근하라고 했어요. 오늘은 저도 일찍 왔고, 당신한테 제가 직접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려고요.”

그러곤 그는 능숙하게 팬에 있던 파스타를 엘리너의 접시에 놓았다. 뜨거운 김이 흘러나오면서 향긋하고 맛있는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엘리너가 그를 바라보자 드레이드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요.”

드레이드는 엘리너와 눈을 마주치며 입꼬리를 올렸다. 엘리너는 그에 맞추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가끔 드레이드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먼저 음식을 준비하곤 했다. 그런데 베케이드 부인까지 이 시간에 퇴근시킨 건 그동안 없던 일이었다.

엘리너는 차가운 포크를 만지작거렸다.

드레이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엘리너는 천천히 시선을 올려서 주변을 둘러봤다.

어느새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차려졌다. 사과 소스가 뿌려진 샐러드에 노릇하게 구워진 빵, 그리고 갓 만든 파스타.

그때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파스타 위에 마른 사과 장식을 살짝 올려주었다. 그의 기다란 손가락은 세심하게 움직였다. 엘리너가 시선을 들자 드레이드는 싱긋 웃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엘리너는 자신의 그릇을 멍하니 바라봤다. 조그마한 사과 장식이 유독 눈에 띄었다. 사과는 엘리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었다. 그러고 보면 드레이드는 엘리너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알았다.

이 식탁 위만 봐도 그랬다. 모두 엘리너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문득 엘리너는 드레이드도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했다. 항상 이렇게 사과 장식과 사과소스 샐러드를 준비하는 걸 보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엘리너는 드레이드가 정말 사과를 좋아하는지 알지 못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엘리너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자신이 정말 드레이드에 대해 무심했던 건가. 하지만 생각해 보면 드레이드는 딱히 강한 호불호가 없었다. 늘 그는 말했었다.

“당신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드레이드는 엘리너에게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끊임없이 물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데 정작 엘리너는 드레이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다. 그다지 큰 소리는 아니었다. 엘리너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포크를 들었다. 차갑게 닿는 포크는 엘리너의 이성을 충분히 잡아주었다.

“엘리너.”

엘리너는 고개를 들어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그 순간 드레이드와 눈이 마주쳤다.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계속 지켜봤는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엘리너는 의아한 듯 그를 바라봤다.

눈이 마주치자 드레이드가 말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는 바로 앞에 있는 음식에 관심도 없는 듯 엘리너를 바라봤다. 그의 짙은 파란 눈동자를 보자 엘리너는 오히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주어 없이 지금 일을 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에게도 말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는가.

엘리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오늘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답답한 일이요?”

“누가 제 일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 같아서요.”

거의 드레이드를 겨냥하고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드레이드는 영 모르겠다는 듯 엘리너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단지 아까보다 약간 표정이 굳었을 뿐이다.

“...”

“...누가 제 일을 방해하는 걸까요?”

엘리너는 의문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차라리 이쯤에서 드레이드가 사실을 말했으면 싶었다. 어쩌면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냥 다 털어놓을 기회. 하지만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 일은 이상한 놈들이 엮이기 마련이잖아요. 일 힘들면 말해요. 당신은 남 뒷조사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잖아요.”

“...”

엘리너가 대답하지 않고 있자 드레이드가 다시 말했다.

“엘리너, 갖고 싶은 유리 공예품은 없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새로운 동물 모양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드레이드는 가끔 엘리너가 힘들어 할 때마다 엘리너가 좋아하는 유리 공예품을 하나씩 사왔다. 대체로 비싸서 살 엄두도 못내는 것이었다. 엘리너도 의뢰를 받을 때마다 하나씩 사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비싼 걸 사주는 것도 이상한 일이야.’

엘리너는 그땐 별 생각도 들지 않았던 것이 지금에서야 더 찝찝해지기 시작했다.

“엘리너?”

드레이드가 엘리너를 다시 한 번 불렀다. 엘리너는 고개를 들어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살짝 내려온 검은 머리에 그녀를 걱정스러워하는 얼굴이었다.

그 모습은 진짜인 것 같았다. 하지만 엘리너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아까 그에게 물어봤을 때 드레이드는 단순하게 말했었다. 마치 남 일처럼.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은근슬쩍 그에게 의심되는 걸 물어볼 작정이었다.

“요즘 은행은 안 힘들어요?”

“은행이요?”

“네, 당신 일하는 곳이요. 그러고 보니 당신 일할 때 한 번도 못 본 것 같네요.”

“은행은 똑같아요. 늘 바쁘고 사람들도 많고...”

드레이드는 아예 손으로 턱을 괴고 엘리너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엘리너와 눈이 마주치자

눈을 찡긋했다. 그러다 엘리너 앞에 있는 음식을 눈짓했다.

“엘리너, 식겠어요.”

그는 앞에 있는 음식에는 하나도 관심 없는 듯 보였다. 엘리너는 침을 꿀꺽 삼키고 포크를 들었다. 그러다 문득 드레이드도 포크 조차 들지 않은 걸 떠올렸다. 엘리너는 시선을 들어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안 먹어요?”

“전 당신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엘리너는 어느새 소매를 내린 그의 팔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드레이드는 가끔 그가 엘리너를 위해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항상 먹지 않았다. 혹시 배가 안 고프냐고 물어도 드레이드는 항상 저렇게 말했다.

‘혹시 음식에 뭘 넣은 건가.’

엘리너는 꺼림칙한 기분으로 파스타를 포크로 휙휙 저었다. 냄새는 괜찮았다. 보기에도 그다지 별다르게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여태껏 엘리너는 그가 해준 음식을 먹고 아픈 적 없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엘리너는 오늘 따라 이 음식을 먹기가 껄끄러웠다.

“엘리너.”

엘리너가 고개를 들자 드레이드가 나직하게 웃으며 말했다.

“원래 좋아하던 거였잖아요.”

드레이드는 잘 알았다.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엘리너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다 아까부터 고픈 배가 신경 쓰였다.

할 수 없이 엘리너는 입을 열었다.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그때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엘리너는 인상을 찌푸리곤 배를 움켜잡았다. 아까부터 내내 배고프던 참이라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몸이 눈치 없을 줄은... 엘리너는 새삼 제 몸에 배신당하는 느낌이었다.

이 상황에 드레이드는 웃음을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너, 어서 먹어요. 당신 말이랑 몸이 반대되는 것 같네요.”

그는 다소 유쾌하게 말했지만 엘리너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무언가 들킨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다. 뭘 들켜봤자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드레이드에게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기에는 상황이 안 좋았다.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프기에 더 그랬다.

엘리너는 앞에 놓인 음식을 봤다.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아서 맛있는 냄새가 콧속으로 그대로 올라왔다.

‘아무래도 한 번은 믿어보는 게 낫겠지.’

어쨌든 엘리너는 드레이드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다. 할 수 없이 엘리너는 포크를 집어 들었다. 내내 휘적거리기만 하던 파스타 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입에 넣었다. 맛있는 향과 함께 입 안에는 익숙한 맛이 감돌았다. 늘 드레이드가 해준 파스타 맛이었다.

“맛있네요.”

엘리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제야 드레이드는 엘리너에게 시선을 떼고 포크를 들었다. 엘리너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면서 그를 관찰했다. 드레이드도 깔끔히 면을 말아서 우아하게 입속으로 집어넣었다. 드레이드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면서 엘리너와 눈을 맞추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눈웃음을 지었다.

엘리너도 마주 웃어주었다. 그러면서 내심 안도했다.

적어도 그는 음식에 장난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였다. 하긴 여태껏 드레이드가 해준 음식을 먹고 탈 난 일은 없었다.

어느 정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였다.

“엘리너, 요즘 의뢰인들은 많이 오나요?”

드레이드는 가볍게 물었다. 하지만 엘리너는 포크를 쥔 손을 멈칫했다. 요즘 따라 의뢰인들도 발길을 거의 끊은 것이다. 드레이드에 대해 알아본다고 엘리너가 의뢰를 거의 안 받고 있긴 했지만 의뢰인들이 전보다 부쩍 안 오는 건 맞았다.

드레이드가 이렇게 자신에게 다짜고짜 물을 줄 몰랐다. 무엇보다 그걸 물은 의도가 뭘까. 드레이드도 자신을 떠보려는 속셈인 건가.

엘리너는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요즘 의뢰인들도 잘 안 와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누군가 제 일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 같다고요.”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묵묵하게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엘리너,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

드레이드는 말을 하다 멈췄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간이 좁아졌다.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뜸을 들일까. 혹시 이제 밝히려는 건가.’

지금 상황에 그게 가장 맞을 것 같기는 했다. 엘리너는 막상 그 사실을 이제 안다고 생각하니 약간 긴장되면서도 허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이제 그 일, 그만 두는 건 어때요?”

“그만두다니요?”

“여태껏 당신 하는 것 보고 많이 신경 쓰였어요. 남 뒷조사 하는 것도 신경 쓰였고, 남들 안 좋은 치정사나 캐는 것도 신경 쓰였고요.”

“...”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당신 일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엘리너는 드레이드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표정을 보고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말했다.

“만약 일을 그만두는 게 그렇다면 잠시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눈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다. 엘리너가 잠시 굳은 듯 바라보자 드레이드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한순간 분위기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내가 말했잖아요.”

“...뭘요?”

“내가 당신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엘리너는 드레이드에게서 시선을 내려서 앞에 놓은 그릇을 쳐다봤다. 그러고 보니 그랬다. 드레이드는 예전에도 엘리너가 이 일을 하면서 남 뒷조사나 하는 걸 힘들어하자 저렇게 말했었다.

그땐 그저 농담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저 웃고 넘어갔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젠... 엘리너는 이젠 정말 드레이드가 궁금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물어봤다.

“절 정말 먹여 살릴 정도는 돼요?”

드레이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너, 전 허튼 소리는 안 해요. 그게 당신과 관련되면 더더욱.”

그의 시선은 엘리너에게 고정되었다. 한 치의 거짓도 없는 눈빛이었다. 약간은 집요하면서도 은근하게 맑은 느낌이었다. 엘리너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마냥 티내지 않았다.

“...제가 만약 그 일을 좋아한다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나갔다. 솔직히 엘리너는 보물 의뢰만 받고 싶었다. 하지만 조수 월급과 의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 뒷조사나 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땐 싫어했다고 아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 같아서요.”

엘리너는 거짓말했다. 그녀는 드레이드의 얼굴을 관찰했다. 그의 얼굴은 쉽사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었다. 이 상황이 그에게 당황스러울 법한데 그는 묘하게 미소를 짓는 얼굴이었다.

그때 드레이드가 말했다.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뭘요?”

“당신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 하니까.”

“아니요, 그건...”

“당신 일도 바쁠 텐데 그런 일은 저한테 맡기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도 바쁘지 않아요?”

“바빠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드레이드는 부드럽게 웃었다. 은근하게 낮은 목소리가 엘리너의 귀를 울렸다. 엘리너는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튀는 느낌이었다.

엘리너는 드레이드에게서 시선을 내리고 앞에 놓은 남은 음식을 바라봤다. 아직 완전히 덜 먹은 파스타가 거의 식어있었다. 가득 찬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빈 것도 아닌, 흰 그릇에 있는 파스타 면.

어쩐지 찝찝하고 불길했다. 지금 와서 당신은 빠지라고 말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엘리너는 답답한 상황에 포크를 놓았다.

그때 엘리너를 계속 본 건지 드레이드가 말했다. 그는 여유롭게 와인 잔을 빙글 돌렸다.

“엘리너, 다 먹었어요?”

엘리너는 이제 배고픔도 어느 정도 가셔서 더 먹고 싶지 않았다. 원래 같으면 식탁에 있는 대부분의 음식을 먹었겠지만 이젠 그런 식욕도 돌지 않았다.

“네. 잘 먹었어요.”

엘리너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대답하자 드레이드는 가차 없이 일어났다. 엘리너는 그의 접시를 언뜻 바라봤다. 파스타 면이 거의 줄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엘리너가 먹은 양보다 더 적었다.

“당신은 더 안 먹어도 돼요?”

엘리너가 걱정스럽게 묻자 드레이드는 씨익 웃었다.

“아까 말했잖아요. 당신만 봐도 배부르다고.”

그는 여유롭게 엘리너 옆으로 와서 그녀의 접시를 가져갔다. 순식간에 그녀의 앞에는 텅 비게 되었다.

엘리너는 곧장 일어나서 드레이드 옆에 섰다.

“...정말 배고프지 않아요?”

드레이드가 개수대 앞에서 슬쩍 엘리너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꽤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엘리너. 전 항상 저녁에는 적게 먹어요.”

엘리너는 그만 할 말이 없었다. 그와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엘리너는 그가 저녁을 적게 먹는지 많이 먹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아예 안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엘리너는 자신이 그동안 정말 드레이드에게 관심이 없었나 생각했다. 아니,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그저 그와 얘기를 나누면서 먹어서 그가 얼마나 먹는지 보지 못한 게 맞았다.

순간 엘리너는 드레이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꾸 머릿속에서 변명거리가 만들어지는 게 우스웠다.

엘리너는 조심스럽게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그는 엘리너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피식 웃었다.

“이제 저한테 관심 가져주네요.”

“그게 무슨...”

“아니에요. 엘리너, 잠시 응접실에서 쉬고 있어요. 제가 뒤처리 할게요.”

드레이드는 몸을 돌려서 다 먹지 않은 여러 음식을 그대로 가져갔다. 엘리너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그의 팔을 잡았다.

“저도 도울게요.”

드레이드는 잠시 멈칫했다. 묵묵한 분위기가 잠시 흘렀다. 엘리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파란 눈동자가 코앞에 있었다. 짙은 열기와 숨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드레이드는 피식 웃고는 엘리너의 볼에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살짝 떨어지는 입술이 부드러워 엘리너는 잠시 멍하게 서 있었다. 그는 엘리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괜찮아요. 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누가 당신 일을 방해해서 힘들잖아요.”

드레이드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히는 것 같았다. 엘리너는 천천히 그의 팔을 놓았다. 드레이드는 싱긋 웃고는 다시 식탁 위를 치우기 시작했다.

엘리너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드레이드를 쳐다보다가 부엌을 나왔다. 응접실과 부엌은 거의 맞닿아 있었다. 그 짧은 거리를 걷는 동안 엘리너는 이곳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아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드레이드에게 무관심했나.

그건 충격이었다. 아니, 그래도 드레이드를 사랑했는데? 지금도 엘리너는 드레이드에 대한 마음은 여전했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엘리너는 응접실 소파에 멍하니 앉았다. 여태껏 드레이드와 살면서 한 번도 엘리너는 그에게 무관심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아니, 무관심했던 게 맞았나.

생각해 보면 드레이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엘리너는 쉽게 떠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드레이드는 강한 호불호도 없었고 엘리너가 좋다고 하면 다 좋다고 했었다.

그래, 드레이드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럼 저녁은?

드레이드가 저녁을 별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기도 했다. 그땐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던 것이 이제야 유난히 눈에 띄는 것 같았다. 엘리너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낯설었다.

‘대체 드레이드는 무슨 생각인 거야. 그 말은 대체 무슨 뜻인지...’

엘리너는 머리를 감싸 맸다. 아까 드레이드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제야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엘리너는 여태껏 드레이드에게 소홀히 한 적 없었다. 그의 생일이 되면 의뢰 때문에 돈을 못 벌어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었고, 그와 늘 시간을 함께 했다.

엘리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응접실 중앙에는 백조 모양의 유리 공예품이 있었다. 지난 엘리너의 생일에 드레이드가 선물해준 것이다. 엘리너가 한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었다.

벽난로 위, 창턱에는 엘리너가 산 유리 공예품 보다 드레이드가 선물 해준 유리 공예품이 더 많았다.

엘리너는 입술을 짓씹었다. 드레이드는 엘리너보다 항상 더 큰 선물을 줬고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많이 배려해주었다.

그땐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처 생각지 못한 사실이었다. 왜 이제야 이 사실이 눈에 보이는 걸까. 드레이드가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이 시점에서.

심지어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일을 그만두라고까지 말했다.

‘무슨 꿍꿍이지...’

대체 왜. 엘리너는 두 손을 만지작거렸다. 긴장될 때나 생각이 많을 때 나오는 습관이었다.

“엘리너.”

엘리너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드레이드가 출입문에 기대서서 팔짱을 낀 채 엘리너를 보고 있었다.

“언제 왔어요?”

“방금요.”

드레이드는 팔짱을 풀고 천천히 엘리너 옆에 다가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엘리너 옆에 앉았다. 엘리너는 그가 오자 옆으로 살짝 비켜 앉았다. 드레이드는 자신과 약간 벌어진 사이를 잠시 바라봤다.

“왜요?”

엘리너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들어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러곤 그는 엘리너를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서 그녀의 뺨을 만졌다. 엘리너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거리며 그를 바라봤다.

“엘리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너가 눈짓으로 묻자 드레이드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 일 방해하는 사람이요. 제가 해결할 거니까.”

엘리너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그를 보며 말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드레이드의 입술이 매끄럽게 올라갔다. 그는 엘리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떡할까요?”

오히려 묻는 말에 엘리너는 당황하며 그를 바라봤다. 드레이드는 미소를 지었다. 엘리너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그러니까 처음 그를 유리 공예품 가게에서 봤을 때 봤던 그 미소와 비슷했다. 미모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였다.

드레이드는 무릎에 있는 엘리너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당신 뜻대로 할게요.”

듣기 좋은 목소리가 엘리너의 귀를 울렸다. 엘리너는 본능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엘리너는 그럴 수 없었다. 마치 그에게 단단히 매인 느낌이 들었다.

분명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드레이드가 손을 세게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손을 잡으며 그녀에게 한층 더 다가왔다. 아까 그와 그녀 사이에 벌어진 거리가 단숨에 사라졌다. 여전히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힘 있게 잡은 것도 아니고 살며시 움켜쥔 정도였다. 그의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불안하게 떨던 손은 그가 잡은 것에 의해 온기라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엘리너는 여전히 그가 의심스러웠다. 마침내 엘리너가 손을 빼려고 하자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손등을 엄지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까보다 묘하게 그의 손힘이 느껴졌다.

“드레이드.”

엘리너가 말하자 그가 부드럽게 엘리너와 눈을 맞추었다. 그의 파란 눈동자가 유난히 짙어보였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베케이드 부인까지 일찍 퇴근시키고요.”

엘리너는 괜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살짝 물려나려고 움직였지만 드레이드가 그녀의 손을 더 끌었다. 순간 엘리너의 얼굴이 그의 얼굴과 더 가까워졌다. 엘리너는 살짝 당황하며 드레이드의 손을 바라봤다.

“엘리너.”

그의 말에 엘리너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는가 싶더니 말했다.

“우리 아기 가지면 어떨까요?”

“아기요?”

드레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너는 적잖이 당황했다. 아기라니. 어렴풋이 그와 결혼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싫어요?”

엘리너는 여전히 당황해서 눈을 깜빡거렸다. 그와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우리 계획은...”

“당신 일이 안정되고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조급해지네요.”

드레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의 말대로 조급함이 있었다. 무언가 이 상황에서 부족한 것 같은, 무언가를 더 갈망하는 눈빛이었다.

“대체 왜...”

엘리너가 당황하는 사이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입술에 거의 닿을 듯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냥 얼른 당신과 나를 닮은 아기를 보고 싶어서요.”

드레이드의 숨결이 코앞에서 느껴졌다. 엘리너는 소파에 손을 짚었다. 축축이 젖은 손바닥이 그대로 소파에 닿았다.

엘리너는 당황스러웠지만 겨우 미소를 지었다.

“전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드레이드에게서 얼굴을 살짝 틀었다. 그의 몸이 살짝 굳은 듯 멈칫했다. 하지만 엘리너는 바로 일어날 수 없었다.

어느새 그의 양 팔이 엘리너의 몸을 가로막고 있었다. 엘리너는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그의 팔을 바라봤다. 하얀 셔츠에 소매를 다 내리고 있어서 그의 하얀 손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그의 손등에 붉은 반점이 눈에 띄었다. 엘리너가 그의 손에 시선을 고정하자 드레이드가 알아챘는지 그녀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부드러운 입맞춤에 엘리너가 고개를 돌리자 드레이드가 기다렸다는 듯 엘리너의 입술을 물었다. 그러면서 엘리너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눕게 되었다.

그의 입술이 엘리너의 입술을 살짝 건들며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엘리너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무시하고 겨우 입을 열었다.

“드레이드, 당신 손...”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입술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당황한 엘리너의 눈을 마주하며 웃었다.

“신경 쓰지 마요.”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엘리너의 입술로 고개를 숙였다. 엘리너는 그에게서 약간 빗나가게 고개를 틀었다. 드레이드는 굳은 얼굴로 엘리너의 눈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까는 멀쩡했잖아요.”

엘리너가 숨을 토해내며 말했다. 어느새 엘리너의 볼도 붉게 물든 채였다. 드레이드는 피식 웃었다.

“좋네요.”

“...뭐가요?”

“당신이 이렇게 절 신경 쓰는 게.”

드레이드의 입술이 엘리너의 입술 주변으로 움직였다. 그의 낮은 숨결이 그대로 콧속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엘리너의 입술에 맞닿아 있었다. 엘리너는 그의 손을 잡았다.

“드레이드.”

“엘리너, 정말 별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거예요.”

대체 뭐지. 엘리너는 슬쩍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자신의 손은 멀쩡했다. 가려운 것도 없었고 속이 메슥거리지도 않았다. 분명 드레이드는 아까 그가 요리할 때만 해도 멀쩡했다. 그러고 보니 그의 팔은 하얀 셔츠에 모두 가려진 채였다.

엘리너는 그의 단단한 팔뚝을 잡았다. 드레이드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가 잡은 팔뚝으로 내려갔다.

“엘리너.”

드레이드가 다시 엘리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말해줘요, 드레이드.”

엘리너가 말하자 드레이드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까보다 여유로운 미소였다.

“싫다면요?”

“드레이드.”

“당신이 알아봤자 불편할 거예요. 거슬릴 테고.”

“이미 거슬려요.”

“잘 됐네요.”

“...”

“계속 저한테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드레이드의 입술이 엘리너의 입술과 맞닿았다. 엘리너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드레이드는 부드럽게 입술을 물면서 그녀의 입이 벌어지도록 기다렸지만 엘리너는 끝까지 입을 벌리지 않았다.

마침내 드레이드가 입술을 뗐다. 그는 아까와 다르게 여유로운 미소를 짓지 않았다. 아무 표정 없이 엘리너를 바라봤다.

“엘리너.”

그의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았다. 엘리너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짙은 파란 눈동자가 화난 듯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엘리너는 그 사이에 침을 삼켰다. 저런 표정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고 저렇게 먼저 그가 시선을 돌리는 것도 처음이었다.

드레이드는 옅은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엘리너에게서 벗어났다.

엘리너는 안도하며 숨을 가다듬었다. 이제 그가 물러가나 싶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마자 드레이드가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드레이드!”

엘리너가 놀라서 소리치자 드레이드는 싱긋 웃으며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미소는 아까보다 더 환했다.

“아무래도 여긴 둘이 눕기에 좁은 곳이라.”

그 말에 엘리너는 더 경악하며 말했다.

“내려줘요.”

하지만 드레이드는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출 뿐이었다. 그는 엘리너를 안고서 쉬지 않고 볼에 잊을 맞추었다. 엘리너는 고개를 틀어서 그의 입맞춤을 피했다. 순간 드레이드가 걸음을 멈췄다.

“피하지 마요.”

엘리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다. 어딘가 상처받은 얼굴이었다. 그것도 여태껏 그와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엘리너는 마음이 이상하게 움찔거리는 걸 느꼈다.

그때 드레이드가 낮게 말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엘리너는 드레이드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한껏 굳어있었다. 이제 그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곧 침실에 들어서자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엘리너는 침대에서 조금 일어나서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그는 서랍 안에 있는 피임약을 꺼내서 단숨에 마셨다. 그는 그걸 마시고 잠시 서 있다가 뒤로 돌아섰다.

드레이드는 엘리너와 눈이 마주치자 말했다.

“엘리너, 오늘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아기는...”

엘리너가 떨떠름하게 머뭇거리자 드레이드가 피식 웃었다. 그는 성큼성큼 엘리너가 앉은 침대로 다가왔다.

“당신이 준비되면 언제든 말해요. 아깐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당신 생각도 모르고.”

드레이드는 부드러운 손길로 엘리너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늘 보던 남편의 부드러운 태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엘리너는 그것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아까 그의 낯선 얼굴을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엘리너는 순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누군가가 오해하도록 저지른 짓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대체 누가? 그 순간 남 뒷조사를 하면서 그런 일의 표적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비밀스럽게 한 건데. 엘리너는 찝찝한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드레이드.”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부드러운 머리를 만지며 엘리너를 바라봤다.

“당신도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요?”

“혹시 당신도 누가 일을 방해한다거나...”

그러자 드레이드가 웃었다. 너무나 순수하게 웃는 웃음이라 엘리너는 잠시 넋이 나갔다. 그는 한참 웃다가 겨우 웃음을 갈무리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미소가 남아있었다.

“그런 일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은 늘 똑같은데...”

하지만 엘리너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그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아, 거슬리는 일이 있긴 있는데.”

“무슨 일인데요?”

엘리너는 저도 모르게 드레이드에게 조금 다가가며 말했다. 아무래도 이번 일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닌 듯 싶었다. 드레이드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면 그도 피해자일 것 같기도 했다.

단순히 드레이드만 의심했는데, 만약 그도 아니라면... 필시 큰일이긴 했지만 엘리너는 드레이드가 이 일에 피해자이길 바랐다. 그래야 그녀의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드레이드는 한껏 다가온 엘리너를 잠시 바라보다 별안간 미소를 지었다.

“...키스해주면 말해줄게요.”

엘리너가 당황스럽게 쳐다보자 드레이드가 엘리너의 볼에 살짝 손을 댔다.

“안 해줄 거예요?”

드레이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엘리너는 꺼림칙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드레이드의 손이 엘리너의 허리를 잡으며 그대로 엘리너를 침대에 눕혔다.

“드레이드!”

“엘리너, 당신이 먼저 나 유혹한 거예요.”

“하지만...!”

드레이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하얀 목에 입을 맞추었다. 엘리너가 숨을 들이키며 움찔거리자 드레이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싫어요?”

엘리너는 숨을 내쉬며 대답하지 못했다. 싫지는 않았다. 다만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울 뿐.

드레이드는 엘리너가 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건지 그녀의 목과 쇄골에 입을 맞추었다.

“흣.”

엘리너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직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데..., 그가 부드럽게 입 맞추는 것은 왠지 모르게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엘리너는 숨을 헐떡였다. 그는 엘리너가 어디에 약한지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의 입술은 가슴 언저리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엘리너는 겨우 숨을 가다듬고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곤 발에 힘을 주어 침대 위로 올라갔다. 엘리너가 위로 올라가니 드레이드는 고개를 들었다.

“드레이드, 아무래도 오늘은...”

“엘리너, 우리 결혼한 지 548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엘리너는 잠시 멈칫했다.

“...다 세고 있었어요?”

엘리너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렇게 일수를 엘리너도 일일이 세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1년 반이나 되겠거니 했는데...

“당신이랑 548일을 같이 살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발목을 살며시 잡았다. 그러곤 기다란 손가락으로 엘리너의 다리에 선을 그리며 허벅지를 잡았다. 그러곤 그는 그대로 엘리너 쪽으로 단숨에 올라왔다.

“단둘이 있고 싶었는데.”

드레이드의 입술이 엘리너의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엘리너는 눈만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낮은 시선은 엘리너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당신은 싫은 거예요?”

그때 드레이드의 시선이 엘리너와 닿았다. 한순간에 가까이서 눈이 마주치자 엘리너는 숨 쉬는 걸 잊은 듯 멍했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처연하면서도 무언가를 바라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서 엘리너의 입술을 바라봤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대로 입술에 닿았다. 잘생긴 얼굴 탓인지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다. 그와 보낸 밤이 많은데 오늘 따라 왜 이리 심장이 뛰는지.

응접실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엘리너는 순간 드레이드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지금 드레이드는 이상하게 더 잘생긴 것 같았다. 그의 볼이 약간 붉은 탓인지, 아니면 숨 막히는 분위기 탓인지.

뜨거운 숨결 사이로 그의 입술이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다. 엘리너는 순간 무언가에 뜨인 듯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드레이드는 싱긋 웃고는 엘리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러곤 한순간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엘리너는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봤다.

“엘리너, 아무래도 당신이 싫으면...”

“드레이드.”

엘리너는 이성을 무시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드레이드는 여유롭게 돌아봤다. 마치 엘리너가 부를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엘리너는 뭔가 그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엘리너는 그런 생각을 접었다. 아직 드레이드가 좋은 건 사실이었다. 지금 그를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고.

“엘리너?”

드레이드는 엘리너가 자신을 부른 이유가 궁금한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쨌든 지금 엘리너는 그와 부부 사이였고 드레이드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엘리너는 우선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다.

“드레이드, 같이 있어요.”

엘리너가 말하자 드레이드는 피식 웃고는 주변의 커튼을 모두 쳤다. 한순간에 주변이 어두워졌다. 곧 그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는 느낌이 났다.

엘리너는 일어나자마자 뻑뻑한 눈을 깜빡였다. 온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했다. 엘리너는 지난밤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성보다는 본능에 이끌려 행동한 게 마음에 걸렸다.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었다. 어쩐지 그에게 말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드레이드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았으면...’

만약 그랬다면 엘리너가 먼저 그를 부를 일은 없을 것이다. 하여튼 잘생긴 얼굴이 무기였다. 뭐, 그 얼굴로 호감이 생기고 결혼까지 한 거였지만. 엘리너는 천성적으로 잘생긴 얼굴에 약했다. 더구나 드레이드 같은 얼굴은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새삼 그때 유리 공예품점에서 만난 우연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엘리너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 허리에 감은 드레이드의 팔이 있었다. 그는 오히려 엘리너를 자신 쪽으로 더 안았다. 엘리너는 문득 그의 팔과 손을 보았다. 어제까지만 있었던 빨간 반점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져 있었다.

“더 자요.”

낮은 목소리가 울리자 엘리너는 그제야 그의 팔을 잡았다.

“...오늘은 일찍 가려고요.”

엘리너가 말하자 그제야 드레이드가 허리를 놓아주었다. 그는 침대에서 곧바로 일어났다.

“아침 차려줄게요.”

“아니에요. 당신은 일찍 갈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드레이드는 가운을 걸쳐 입고는 말했다.

“준비하고 내려와요.”

드레이드가 방을 나가자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무언가 허전한 느낌도 감돌았다. 엘리너는 침대에 다시 주저앉았다. 드레이드는 변하지 않았다. 단지 엘리너는 자신만 마음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제는 드레이드가 곤란한 일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생각해 보면 장난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기도 했다. 엘리너는 입술을 짓씹었다. 그와 거리를 둬야할까 아니면 어젯밤처럼 가깝게 지내야 할까.

쉽사리 선택할 수 없었다. 여전히 마음속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했다. 오히려 어제 이후로 그 의심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았다. 드레이드는 사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은근히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았고 그게 그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의 손등에 생긴 붉은 반점이나 그가 말한 관심 등...

엘리너는 두 손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시계를 바라봤다. 어느새 출근 시간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엘리너가 관리하는 의뢰소라서 출근 시간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늦기는 싫었다.

무엇보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직접 드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더 속편할 것 같아서였다.

엘리너는 가볍게 외출용 드레스를 입고 방을 나섰다. 방문을 열자마자 아래층에서 맛있는 냄새가 올라왔다. 그 냄새를 맡자마자 엘리너는 왠지 모르게 드레이드에게 미안한 감정마저 들었다. 드레이드는 마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엘리너는 지금 완전히 드레이드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만약 드레이드가 피해자라면?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누군가가 드레이드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저지른 짓이라면?

그렇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녀 모르게 드레이드가 누군가와 일을 벌이지 않는 이상.

그 순간 엘리너는 걸음을 멈칫했다. 생각해 보니 드레이드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엘리너는 잘 몰랐다. 결혼식 때도 몇몇만 불렀을 뿐.

그 몇몇도 딱히 기억에 남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이상했다. 가끔 드레이드와 무도회에 갔을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다. 더구나 간혹 그와 말할 때 그의 입에서는 꽤나 명망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곧잘 나왔었다. 델라키드 백작이나 벨킨 공작 등 그들은 이 제국에서 꽤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맨 먼저 그를 아는 사람부터 조사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은 너무 거물이었다. 그전에 드레이드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어차피 엘리너가 궁금한 사람은 드레이드였다.

엘리너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너, 오늘은 간단히 샌드위치 준비했어요.”

드레이드는 간단히 샌드위치라고 말했지만 간단한 수준이 아니었다. 속이 꽉 채워진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였다. 이걸 언제 다 준비했는지... 엘리너는 놀란 눈으로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얼른 먹어요.”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혔다. 그는 엘리너의 맞은편에 앉아서 싱긋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마치 엘리너가 먹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엘리너는 그의 시선이 너무 집요해서 어색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엘리너는 선뜻 먹지 못했다. 그저 샌드위치를 들고만 있었다. 엘리너가 고민하는 게 보였는지 드레이드가 미소 지었다.

“독약이라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엘리너가 당황하며 묻자 그는 농담이라는 듯 가볍게 말했다.

“독약 안 넣었으니까 먹어요. 당신 아침은 꼭 챙기잖아요.”

엘리너는 굳은 마음으로 샌드위치를 바라보다가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그는 엘리너가 음식 먹는 걸 꼭 보려는 것처럼 집요하게 바라봤다는데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어서 그가 어떤 생각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정말로 그 말을 농담으로 한 건가?

엘리너는 샌드위치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입 베어 물었다. 그의 집요한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정말 이걸 다 먹기 전에는 이 식탁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묘한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이 상황에서 뱃속까지 눈치 없이 굴고 있었다.

샌드위치가 여간 푸짐한 게 아니라서 머리는 이미 저걸 뱃속으로 넣으라고 성화였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푸짐하게 만들어서...’

드레이드의 음식 솜씨는 너무나 훌륭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먹고 싶게 만들었으니. 결국 엘리너는 몸이 바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걱정스러운 마음과 달리 샌드위치는 먹을 만했다. 한입 베어 물자마자 엘리너의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맛있어요.”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반응이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당신 좋아하는 것만 넣었어요.”

“당신은요?”

드레이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짓하자 엘리너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샌드위치 안 먹어요?”

“아, 전 이미 먹었어요.”

“그래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당신 먹는 거 보려고 미리 먹었어요.”

엘리너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끔 드레이드는 저렇게 할 말을 없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그저 환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어딘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다.

‘설마 정말 음식에 장난친 건 아니겠지.’

드레이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오늘은 그가 먼저 먹었다고 했으니...

하지만 뻔한 결과였다. 만약 드레이드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죽이거나 아프게 만들 작정이라면 어제 저녁에 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베케이드 부인도 없는 마당에 유일한 용의자는 드레이드였다.

그러니까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일을 꾸밀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나마 어제 드레이드가 함께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엘리너는 음식에 대한 의심을 그쯤으로 해두었다. 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드레이드를 미친놈으로 만들 것 같았다.

엘리너는 마지막 한 입을 먹고는 미소를 지었다.

“잘 먹었어요.”

그건 진심에서 나온 미소였다. 늘 드레이드가 하는 요리는 맛있었지만 유난히 오늘 아침은 더 맛있는 것 같았다.

엘리너는 다 먹고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다. 주변은 음식을 만든 흔적도 없었다. 그가 벌써 다 치웠는지 엘리너가 굳이 나서서 치울 것이 없었다.

“엘리너,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요. 당신 뒤처리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미 다 치운 것 같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치울 것도 없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베케이드 부인이 올 테니까 알아서 할 거예요.”

엘리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레이드가 그렇게 말하니 딱히 더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럼 갔다 올게요.”

그렇게 말하곤 부엌을 벗어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막 문을 열려고 할 때였다.

“엘리너.”

드레이드가 부르는 소리에 엘리너는 고개를 돌렸다.

드레이드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 이 크림 다 떨어진 것 같아서요.”

드레이드는 초록빛 동그란 통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키키드 크림이었다. 엘리너의 어머니가 개발했지만 갑자기 가문이 망하는 바람에 키키드 크림도 어머니도 한 순간에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하지만 키키드 크림을 만드는 게 적혀있는 종이는 남아있어서 그나마 남은 게 이것 하나였다. 엘리너는 천천히 손을 펼쳤다.

“...어떻게 알았어요?”

엘리너가 고개를 들며 묻자 드레이드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이때쯤이면 당신이 쓰는 크림 다 떨어지잖아요.”

드레이드는 당연한 듯 말했다. 그러곤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엘리너에게 말했다.

“잊은 거 없어요?”

“잊은 거요?”

드레이드는 엘리너에게 한 발자국 다가왔다. 그러곤 그는 자신의 볼을 가리켰다.

“아...”

엘리너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가볍게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드레이드가 한순간 그녀의 허리를 붙잡으며 더욱 끌었다. 곧 그의 입술이 엘리너의 입술과 겹쳤고 엘리너는 놀라긴 했으나 그의 키스를 받아주었다.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엘리너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잘 갔다 와요.”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볼에 다시 입을 맞추었다. 엘리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저택 문을 닫고 거리에 나왔을 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치 못할 짓이라도 저지른 듯 마음속이 열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 의심이 들다가도 저렇게 한결 같이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괜히 의심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다. 분명 드레이드 이름과 사진이 있었다.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분명 합리적이긴 한데...’

엘리너는 머릿속이 어제보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다. 은근하게 바뀐 드레이드의 말과 태도도 그랬다. 여태껏 한 번도 그의 관심을 거절한 적 없어서 처음 보는 태도였다. 그리고 대체 그 붉은 반점은 뭐냐고.

생각에 잠겨서 걷던 엘리너는 순간 걸음이 흐트러졌다. 엘리너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직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고 있다고 해도 엘리너를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었다.

엘리너는 당황하지 않은 척 아래를 바라봤다. 돌멩이 몇 개가 신발 아래에 흐트러져 있었다. 이딴 돌멩이 때문에 엘리너는 우아하지 않게 넘어질 뻔했다. 엘리너는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지만 키키드 크림을 꺼내서 발목 아래에 발랐다.

키키드 크림은 멍든 곳이나 근육통에 좋은 약이었다. 그 외에도 약효가 좋아서 엘리너는 항상 이 크림을 가지고 다녔다.

시원한 박하 향이 순식간에 주변에 맴돌았다. 엘리너는 익숙한 향을 맡으며 키키드 크림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어머니도 공장도 없어서 엘리너는 이걸 어디서 살 수도 없었다. 이 키키드크림만 보면 엘리너는 과거의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다.

좋은 기억은 아니었으나 잊을 수도 없는 기억이었다.

엘리너가 보물사냥꾼이 된 이유도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다. 가문의 보물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 과거에 키키드 크림을 팔아서 그런대로 굴러가던 사업은 가문의 보물이 사라진 뒤로 한순간에 망해버렸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아직도 엘리너는 가문의 보물을 찾지 못했다. 에메랄드가 박혀있는 목걸이였는데 그 목걸이는 행운의 상징이었다.

어떤 정령의 기운이 깃들어 있어서 가문의 행운과 번영을 책임진다고 했는데... 어렸을 땐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다. 행운과 번영이라니. 너무나 모호한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목걸이가 없어지자마자 거짓말처럼 가문이 망해버렸다.

물론 키키드 크림 사업은 약간 위태롭긴 했다. 하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모든 것이 다 그 목걸이가 사라진 것 때문인 것 같았다.

더구나 어머니의 목숨도 그렇고. 엘리너는 씁쓸한 기분을 느끼며 걸었다. 발목에서부터 박하 향이 유난히도 진하게 나는 것 같았다.

“일찍 오셨네요!”

엘리너의 의뢰소에서 다양한 잡일을 맡고 있는 피티였다. 피티는 적당히 눈치 있고 손이 빨라서 엘리너의 충실한 조수였다. 그녀는 특이하게도 남의 뒷조사나 치정사를 파헤치는 게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독립하고 나면 그들의 비밀스러운 일을 더욱 비밀스럽게 완수하고 싶다고 해서 엘리너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냥 일찍 오고 싶어서요.”

엘리너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엘리너는 멍하게 생각에 잠겼다. 아무래도 어제 일이 쉽사리 머릿속에 잊히지 않은 까닭이었다. 무엇보다 드레이드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빨간 반점은 대체 뭘까. 어제 저녁까지는 있었는데 아침에는 사라지고...

“엘리너 님.”

“...”

“엘리너 님!”

엘리너는 고개를 들어 피티를 바라봤다.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왜요?”

“아침부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요.”

피티는 마른 화분에 물을 흥건히 주고 난 뒤 엘리너에게 다가왔다. 엘리너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의심 가는 일이 많아서요.”

피티는 그 말에 대충 의미를 파악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 그녀도 엘리너의 남편에 대해 알고 있었다. 엘리너가 지시한 일을 하다가 알아낸 사실이었다.

그때 커다란 한숨소리가 들렸다. 엘리너가 낸 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있는 서류를 보고 있었다. 드레이드에 대한 서류였다. 그 모든 일에 드레이드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엘리너는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서류를 보다가 말했다.

“요즘 의뢰 들어온 거 있어요?”

피티는 머뭇거리듯 말했다.

“...아니요.”

그 말에 엘리너는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아무래도 내 남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요,”

“드레이드 님이요?”

“그동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피티는 의아해하면서 말했다. 자신이 보기에도 엘리너는 드레이드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준 사람이었다. 늘 그의 생일에는 일찍 들어갔고, 한 번씩 이곳으로 선물이 도착하면 엘리너는 환한 얼굴로 드레이드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엘리너는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한 마디로 엘리너와 드레이드는 완벽한 한 쌍이었다. 결혼에 생각 없던 피티도 한 번쯤 결혼을 생각해 보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엘리너는 쓰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면이 많은 것 같아서요.”

피티는 의외라고 생각했다. 정말 둘은 완벽한 한 쌍 같았는데...

“피티, 드레이드가 일하는 은행에 대해서 알아봐 줄래요? 핀 은행일거예요.”

엘리너의 말에 피티는 상념에서 깨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알아볼게요.”

피티가 부지런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 엘리너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드레이드의 붉은 반점에 대해서 알아볼 작정이었다. 그는 정확히 말해주길 거부했지만 엘리너는 영 찝찝했다.

“잠깐 도서관에 갔다 올게요.”

엘리너는 곧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딱히 급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할 일도 없었다. 마침 도서관은 핀 은행 근처에 있으니 겸사겸사 핀 은행에 한 번 들러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애당초 엘리너는 그의 은행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땐 딱히 그가 일하는 곳에 관심도 없었고 관심 가질만한 시간도 없었다. 은행 업무는 모두 드레이드가 하기도 했었다. 또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엘리너도 바쁜 시기였다. 하지만 이젠 그런 의뢰도 약속이라도 한 듯 한순간에 사라졌다.

어쩌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인지 몰랐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 뭐가 되었든 엘리너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직도 출근시간이라 그런지 거리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엘리너는 도서관 쪽으로 가는 전차를 탔다. 마침 운 좋게도 전차가 도착해있었다.

전차 안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몇 몇은 신문을 들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으며 조는 사람, 멍하게 밖을 보는 사람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 엘리너는 멍하게 밖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도서관에 도착할 때까지 밖을 보고 있을 때였다.

“자네, 요즘 일 어떠나?”

갑자기 들린 말소리에 엘리너는 고개를 돌렸다. 콧수염을 멋들어지게 기른 남자가 옆의 사람을 보며 말하고 있었다.

“황제 폐하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요즘 내 일도 울상이네.”

“그래도 황태자 전하가 있지 않는가?”

그 말이 나오자 그 둘은 서로 못할 말이라도 했는지 주변 눈치를 보았다. 엘리너는 눈치 빠르게 밖을 보는척했다. 그러자 그 둘은 안심했는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분도 요즘 입지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네. 그 보물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 사생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흠, 하긴 그쪽에서 아주 많은 걸 들고 있다고 하더군. 그래서 황태자 전하도 꽤 많이 고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황태자 전하가 유리하지 않는가?”

“그건 모르지. 들어 보면 은근히 사생아 쪽으로 기운 사람도 몇 몇 있는 것 같던데.”

“어허, 자네 위험한 소리를 하는군.”

“흠, 그래도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그때 전차가 멈춰 섰다. 엘리너는 가볍게 전차에서 내렸다. 전차는 곧 빠르게 달려 나갔다. 엘리너는 멀어지는 전차를 보다가 이내 몸을 돌렸다. 황제 폐하가 몸이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황태자가 나설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다는 건 알지 못했다.

거기다 사생아? 처음 아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가.

하지만 엘리너는 곧 그 사실을 잊었다. 애초에 별로 관심 없기도 하고 그게 당장 엘리너의 삶에 영향을 줄 것도 아니어서 그랬다. 지금 그녀가 궁금한 건 드레이드의 붉은 반점이었다. 그가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줘서 더 궁금했다.

엘리너는 굳은 발걸음으로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도서관에는 간간이 사람이 있긴 했지만 많은 정도는 아니었다. 엘리너는 의학 서적을 모아놓은 것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갔다.

엘리너는 넓은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드레이드는 저녁을 먹고 난 뒤 그 상태가 나타났다. 그가 오래 앓은 지병일까? 아니면 정말 가벼운 병이라던가...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그렇게 여유로울 까닭이 없었다. 엘리너는 그 증상이 전염병인지 심각한 병인지 오랫동안 앓은 지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건 도서관까지 온 이유는 그가 걱정되어서였다. 물론 드레이드에 대한 의심은 아직 여전히 있지만 무엇보다 그의 그런 몸을 보니 의심보다는 걱정이 되었다.

엘리너는 혹시나 싶어서 우선 심각한 병의 증상부터 찾아보았다. 그렇게 열심히 서적을 뒤적이던 엘리너는 곧장 책을 놓았다. 몇 권을 봐도 붉은 반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애초에 그런 증상이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심각한 병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물론 희귀병 증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책에서는 그런 증상은 없었다.

엘리너는 두 손을 만지작거렸다. 당최 드레이드는 왜 이 사실을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그가 한 말이 생각났다. 자신을 계속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드레이드가 원하는 게 끊임없는 의심과 관심이라면 그는 옳았다. 엘리너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엘리너는 옅은 한숨을 쉬며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러다 시계를 보고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다.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있었다. 열심히 책을 뒤적거리니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엘리너는 그쯤에서 책을 정리해서 한 곳에 갖다놓았다. 우선 심각한 병이 아니란 건 알았으니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았다.

도서관을 나서자 뜨거운 햇빛이 엘리너의 눈을 찔렀다. 엘리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멀끔한 건물을 보았다. 핀 은행이었다. 아티나 제국의 수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은 거의 이곳뿐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쁘게 오가갔다. 엘리너는 잠시 망설였다.

‘한 번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상 그 건물이 보이자 엘리너는 쉽사리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무엇보다 드레이드가 바쁠 것 같아서였다. 이렇게 바쁠 때 찾아오면 괜히 드레이드에게 미안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엘리너는 걸음을 뗐다. 어차피 온 김에 그저 슬쩍 보고 갈 수도 있는 거였다. 굳이 그에게 아는 척하지 않아도 말이다.

애초에 핀 은행에 걸음을 한 이유는 한 가지 뿐이었다. 정말 드레이드가 건실한 은행원인지 의심이 갔기 때문이다. 어쨌든 엘리너는 드레이드가 은행에서 일하는 모습만 슬쩍 보고 오기만 해도 되었다.

“어서 오세요.”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친절한 사람이 웃으며 인사해주었다. 엘리너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주변을 둘러봤다. 밖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많았다. 엘리너는 바쁘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은행원들 사이로 드레이드를 찾았다. 어제 드레이드가 말했었다.

항상 바쁘고 매일 똑같다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드레이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드레이드는 은행 업무를 볼 때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제일 피곤한 일이라고 했었다.

그 말대로라면 지금 열심히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 중 드레이드가 있어야 했다. 거기다 그는 자신 스스로 말단 은행원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드레이드는 보이지 않았다.

‘뭐지...’

왜 안 보이는 걸까. 엘리너는 순간 온 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 아니, 애초에 그는 이 은행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건가.

“비키시오!”

순간 누군가 엘리너를 밀쳤다. 엘리너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봤지만 그는 일이 매우 바쁜지 곧장 빈 곳으로 앉아서 은행원에게 무언가를 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시선을 돌렸을 때였다.

“...드레이드?”

출입문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말끔한 검은 정장에 깔끔하게 검은 머리를 넘긴 남자였다. 한 눈에 봐도 잘생긴 미모가 눈에 들어왔다. 엘리너는 이곳에 사람이 많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며 곧장 사람들 틈 속에 섞여서 그를 관찰했다.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드레이드 주변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고 있었는데 마치 그를 보필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말단 은행원. 은행 업무를 볼 때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제일 피곤하다고 하던 드레이드였는데...

드레이드는 곧장 총을 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드레이드를 보자마자 충직하게 인사했다. 마치 그가 그곳을 자주 애용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드레이드는 가볍게 인사를 받고는 그 문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문으로 모두 따라갔다.

엘리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뭐부터 생각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뭘까...’

대체 드레이드는 이곳에서 어떤 사람인 걸까. 드레이드가 들어간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거기다 총을 든 사람까지 그곳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걸 본다면 그가 이곳에서 그다지 낮은 자리는 아닌 듯 싶었다.

‘왜 거짓말을 했지?’

이젠 그게 궁금했다. 엘리너 주변으로 사람들이 툭툭 치고 지나갔다. 엘리너는 입술을 짓씹으며 은행을 나왔다. 은행에 나오자마자 키키드 크림을 꺼내서 손목은 물론 팔에 크림을 발랐다.

멍들 정도로 사람들과 접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엘리너는 그 키키드 크림의 향기를 맡으면 그나마 머릿속에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다. 그를 알아갈수록 왠지 모르게 더 모르는 느낌이었다. 그걸 이제야 알아챈 것도 엘리너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지 못했다.

의뢰소에 도착하자 피티가 환한 얼굴로 인사했다.

“엘리너 님!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요.”

엘리너가 고개를 젓자 피티가 조심스럽게 책상에 꽃바구니와 함께 샌드위치를 얹어놓았다.

“이게 뭐예요?”

샌드위치는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꽃바구니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궁금해 하며 묻는 엘리너를 보며 피티가 웃으며 말했다.

“드레이드 님께서 보내셨어요.”

“남편이요?”

피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꽃바구니를 앞으로 더 밀었다. 엘리너는 꺼림칙한 기분으로 꽃바구니를 보다가 안에 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 드레이드]

깔끔한 필체에 군더더기 없는 말이었다. 엘리너는 쪽지를 잠시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당장 드레이드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인사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엘리너는 꽃바구니를 옆으로 치웠다.

피티는 엘리너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이내 점심시간 내내 골머리를 앓았던 일을 보고했다.

“엘리너 님, 핀 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거긴 보안이 철저해서 제가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았어요?”

“흠,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핀 은행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알 정도의 정보라서 그다지...”

“그 정보는 뭔데요?”

“딱히 새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핀 은행은 황제의 사생아가 모든 지분을 들고 있대요. 그래서 황태자 쪽에서 그 은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황제의 사생아. 엘리너는 아까 전차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계속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히는 기분이 들었다.

“다른 건 없어요?”

“네... 제가 조사한 건 이게 다예요.”

피티는 시무룩하게 말했다. 엘리너는 피티가 나름대로 머리를 싸맨 것 같아 더 묻지 않았다.

“수고했어요.”

피티는 조심스럽게 엘리너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도 이렇게 밖에 정보가 안 나오는 게 아쉽기도 했다.

“...엘리너, 님 더 조사해 볼까요?”

“내 마법구로 안 되면 애초에 의도적으로 막은 거라서 어떻게 하지 못할 거예요.”

피티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신 마법구로 정보를 수집해도 한계가 있었다. 엘리너의 의뢰소에 쓰는 마법구는 언뜻 보면 유리구슬 같지만 고도의 마법 공식으로 계산되어서 주변에서 떠도는 정보를 자연히 흡수하는 마법 구슬이었다. 간혹 마법구로 수집되지 않는 정보들이 있는데 대개 고급 마법으로 동여맨 정보들이었다.

그렇게 정보를 동여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대다수는 그다지 정보를 마법으로 방어하지 않는다. 사실 마법구로 정보를 추적당하는 사람들도 드물었다. 애초에 마법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한정적이었고 수많은 정보를 가려서 모아야 하기 때문에 마법구를 설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정보를 마법으로 동여매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마법구로 정보를 모으지 못하면 결국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핀 은행은 직접 움직이게 만들 만한 정보도 별로 없었다. 한마디로 누군가 고의로 그런 정보를 막은 것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다르게 계산해서 설계해볼게요.”

피티는 의욕은 잃지 않았는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엘리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엘리너는 책상을 보며 다시 표정이 굳었다. 드레이드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더 의심이 들었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알면 알수록 의외로 그가 숨기는 게 많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의뢰소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건 거의 한 달 만이었다. 피티가 놀란 눈으로 엘리너를 한 번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의뢰소입니다.”

전화를 받는 내내 피티의 표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밝은 표정이었으나 그쪽에서 별로 좋지 않은 말을 내뱉는지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다. 순간순간 엘리너의 눈치를 보기도 했다. 엘리너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피티를 계속 바라봤다.

곧 전화가 끊어졌고 피티는 전화기를 조심스럽게 놓았다.

“...저기, 엘리너 님.”

조심스럽게 묻는 피티의 목소리에 왠지 모르게 엘리너는 또 자신의 일이 방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그 전과 느낌이 비슷했다.

“무슨 일인데요?”

“재판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제출한 아티나 부인의 증거가 잘못 왔다고 하네요.”

“또 증거가 뒤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분명 그땐 몇 번이나 확인하고 보냈었는데...”

엘리너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전과 아주 비슷했다. 엘리너는 옆에 치워진 꽃바구니를 보며 말했다.

“누가 참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 같네요.”

“엘리너 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쪽에서 한 실수일지 모르잖아요.”

피티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런 실수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너무나 빈번했다.

엘리너가 아무 대답이 없자 피티가 말했다.

“그럼 엘리너 님, 전 재판소에 잠깐 다녀올게요. 그 일은 갔다 오면 금방 해결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쪽에서도 아직 그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요.”

피티는 선반에 있는 여러 서류 더미들을 자루에 넣으며 말했다.

“조심히 갔다 와요.”

“네, 다녀올게요.”

피티가 의뢰소를 나가자 주변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엘리너는 다시 옆에 있는 꽃바구니를 바라봤다. 보랏빛과 붉은빛이 적당히 어우러진 리시안셔스였다. 꽃봉오리가 꽤 탐스러워서 눈길을 끌었다. 엘리너는 천천히 꽃잎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웠지만 금방이라도 짓이겨지고 시들 것 같았다.

변하지 않는 사랑.

엘리너는 리시안셔스를 보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다. 꽃말도 적당하고 꽃도 탐스러워서 딱 선물하기 좋은 꽃이라고.

드레이드에겐 리시안셔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매일 이렇게 꽃 선물을 보낼 때마다 다른 꽃을 보냈는데 오늘은 리시안셔스였다.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드레이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엘리너는 그런 마음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분명 엘리너는 어제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진실을 말할 기회. 드레이드가 그걸 눈치 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는 분명 눈치 챘을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말했으니.

그건 분명 드레이드가 의도한 말이었다.

엘리너는 순간 전화기를 들었다.

‘그냥 물어볼까.’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서로 지지부진하게 의심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다. 하지만 엘리너는 쉽사리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손에서는 조금씩 땀이 배어 나와서 축축해졌다. 늘 빠른 상황 판단으로 그동안 의뢰소도 망하지 않게 경영해온 엘리너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아니 드레이드와 관련된 일은 이상할 정도로 망설여졌다. 아직 그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를 조금이라도 다른 쪽으로 믿고 싶은 건지...

그러고 보면 드레이드가 그녀를 방해한 증거만 있을 뿐 다른 증거, 이를 테면 드레이드가 정확히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그의 자산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건 하나도 없었다.

드레이드가 엘리너를 방해한 증거도 겨우 추적해서 얻은 증거였다. 그 당시 엘리너에게 의뢰를 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의뢰를 취소했다. 그리고 그들이 특정 인물을 만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지베드라는 사람이었다.

엘리너는 한동안 지베드를 추적하다가 그 사람이 유독 전화 통화를 오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베드의 뒤를 밟다가 드레이드와 만나는 것까지 보았다. 엘리너는 지베드를 관찰하면서 그가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던 그가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드레이드였다.

그 사실을 알고 지베드를 찾아갔을 때 그는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지베드가 살았던 집에서는 한창 집을 치우고 있었다. 모두 쓰레기라도 되는지 버리려고 하길래 엘리너는 그곳에서 모든 서류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 서류 중에 드레이드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가 있었다.

너무나 상황이 딱 들어맞았다. 갑자기 사라진 지베드와 그곳에서 나온 드레이드에 관한 서류. 그리고 지베드가 사라진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교묘한 방해.

그러니까 그 모든 방해 위에는 드레이드가 있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베드가 왜 갑자기 사라졌겠는가. 마치 그 모든 일을 알아차린 것처럼. 드레이드의 알려지지 않은 자산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어쩌면 지베드도 돈으로 매수했는지도 모른다.

엘리너는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더 있었다. 그렇게 돈으로 매수하고 일을 꾸몄는데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는 거였다.

‘왜 내 일을 방해하는 걸까?’

정말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두게 만들기 위해서인 걸까? 어제 저녁에 드레이드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드레이드가 은연중에 그런 뜻으로 말한 지도 몰랐다. 정말 엘리너가 이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왜?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너는 드레이드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황태자의 보물을 찾고 난 뒤 그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그때 갑자기 찰랑거리며 문이 열렸다. 엘리너는 피티가 돌아 왔겠거니 하면서 턱을 괸 채 드레이드에 관한 서류만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레브 마법연구소 맞나요?”

꽤나 경쾌하게 묻는 목소리였다. 엘리너는 출입문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니요. 그곳은 1년 전에 옮겼어요.”

가끔 엘리너의 의뢰소에 저렇게 마법연구소를 찾는 사람들이 왔다. 원래 이곳에 꽤 이름이 있는 마법사가 있었던 모양인지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도 옮긴 지 1년이나 되었고 8개월 전부터는 그런 사람의 발길도 거의 끊겼다.

그런데도 아직 그곳을 찾는 사람이 있다니.

엘리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혹시 엘리너 님이세요?”

뜻하지 않는 말에 엘리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또랑또랑한 눈을 뜬 채 엘리너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었다.

엘리너는 멀뚱하게 그 사람을 쳐다봤다.

보기 드문 미남이었다. 드레이드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이었는데 옷에는 마법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있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마법구들이 찰랑거리며 흔들렸다.

그는 성큼성큼 엘리너에게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전 매키브라고 합니다!”

그가 엘리너에게 손을 내밀었다. 엘리너는 그의 커다란 손을 보다가 시선을 들어서 그를 바라봤다. 정말 반가운 사람이라도 만났는지 눈빛이 순진무구했다. 저런 눈빛은 여태껏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보기 드물게 순수한 느낌이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머물렀다. 그녀의 인사를 받아주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엘리너는 떨떠름하긴 했지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그가 엘리너의 손을 꽉 잡고서 가볍게 흔들었다.

“반갑습니다!”

매키브는 활짝 웃었다. 엘리너는 예의상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왠지 찝찝해서 곧바로 손을 빼려고 힘을 주자 그는 눈치도 없는지 엘리너의 손을 더 잡았다.

“저기.”

엘리너는 눈짓으로 자신의 손을 가리켰다.

“아, 죄송합니다.”

매키브는 가볍게 손을 뗐다. 엘리너는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나저나 절 어떻게 아세요?”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유명하다고요?”

“네! 이 근방에서 사람 뒤를 그렇게 잘 캐신다고 소문이 났던데...”

“...”

엘리너는 할 말을 잃었다. 돈을 번다고 너무 그런 일을 다 맡아서 그런 건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보물 의뢰는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였으니까. 더구나 요즘은 다들 보물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 찾아달라는 의뢰도 없었다.

“흠, 어쨌든 칭찬으로 들을게요.”

“뭘요.”

그러곤 엘리너는 매키브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아무 말이 없자 매키브도 조용했다. 그러곤 이제 그가 눈치껏 나가겠거니 생각하며 드레이드에 대한 서류를 정리했다. 마냥 멍하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도 마법구를 손보거나 자잘하게 해야 할 일은 해야 했다.

그렇게 엘리너가 마법구를 한참 손 보고 난 뒤였다. 울려야 할 출입문은 여전히 닫혀서 소리도 내지 않았다. 엘리너는 힐끔 옆을 바라봤다. 매키브가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앉아있었다. 마치 이곳이 박물관처럼 보이는지 호기심 넘치는 눈빛이었다.

엘리너는 기가 막혔다. 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그래서 다짜고짜 말했다.

“안 가세요?”

“네?”

“볼일 다 끝난 것 아니었나요?”

엘리너가 차갑게 말했지만 매키브는 아무렇지 않은지 활짝 웃었다.

‘눈치 없는 사람인가.’

엘리너가 떨떠름하게 바라보자 그는 옷에 매달아 놓은 마법구들을 펼치며 말했다.

“혹시 마법구 안 필요하세요?”

엘리너의 얼굴이 굳었다. 저렇게 마법구를 주렁주렁 옷에 매달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마법구 방문 판매원이라니. 요즘은 저렇게 의뢰소 주인 이름까지 외우며 다니는 줄 몰랐다. 교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다.

엘리너는 차갑게 말했다.

“나가요. 안 사요.”

“하지만, 여기에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있어요.”

엘리너는 옆으로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정말 필요 없으신가요?”

언제 왔는지 매키브가 하얀 빛이 나는 마법구를 내밀었다. 엘리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얼굴이 아까울 정도였다. 왜 이렇게 남을 피곤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걸까.

“안 사요.”

엘리너는 또박또박 말했다.

“음 이게 마음에 안 드시나...”

매키브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다른 마법구를 꺼냈다.

“그럼 이건 어때요?”

붉은 색의 마법구였다.

“안 산다고요.”

엘리너가 얼음장처럼 말했지만 매키브는 오히려 무릎을 꿇으며 앨리너와 눈을 맞췄다. 그는 책상을 양손으로 잡은 채 활짝 웃었다.

“하나만 사주세요. 네?”

살짝 내려온 머리에 순진무구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입꼬리 위로 깊게 파인 보조개. 그의 얼굴은 무기였다. 한순간에 얼음장 같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무기.

엘리너는 잠시 멍하게 있다가 시선을 피했다. 미모가 무기가 된 다는걸 알았지만, 저걸 또 한 번 깨닫다니. 하여튼 너무 잘생기면 문제였다. 잠시간 할 말을 잃게 만들었으니.

엘리너가 곧바로 시선을 돌리자 매키브가 빠르게 말했다.

“그럼 혹시 고장 난 마법구나 설계하기 어려운 마법구 있나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꽤 잘나가는 기술자인데.”

“없어요.”

“에이, 그래도 하나쯤은...”

엘리너는 답답해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말이라도 할 찰나였다.

“다녀왔습니다!”

경쾌하게 피티가 말하며 들어왔다. 엘리너는 잘 되었다 싶어서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어? 매키브 어쩐 일이에요?”

“아, 마법구 팔려고 하는데...”

“마법구는 이미 있어요, 그보다...”

“잠깐만요.”

엘리너는 자연스러운 그들의 대화를 막았다.

“둘이 아는 사이에요?”

“네.”

“네.”

“그럼...”

“아, 엘리너 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매키브는 간혹 제가 마법구 설계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마법구를 파는 사람이에요. 여태 바쁘다며 방문도 하지 않더니...”

“그래도 왔잖아요.”

매키브는 활짝 웃었다. 엘리너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럼 그렇게 진작 말하지. 엘리너는 답답한 마음에 매키브에게 말했다.

“왜 말 안했어요?”

“뭐가요?”

“피티를 알고 있다고요.”

“아, 그 말 하기 전에 엘리너 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

“그런데 아무래도 그건 잘 안 된 것 같네요.”

매키브는 약간 시무룩하게 말했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었다. 마치 웃음이 얼굴에 박제라도 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얼굴에 웃으니 별로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호감이라도 가질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걸 알고 일부러 저렇게 웃는 건가. 엘리너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한 말을 떠올렸다.

“...여기 처음 왔을 때 마법연구소라고 했잖아요.”

“아, 그건 제가 장난 한 번 쳐 보건데.”

매키브는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엘리너는 진심으로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다 순간 화가 울컥 치밀었다. 저 사람이 날 놀리나. 그런 기색은 눈치를 잘 채는지 매키브가 말했다.

“죄송해요.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매키브는 순진하게 물었고 피티도 엘리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만약 여기서 네, 기분 정말 나쁘네요. 라고 말하면 속 좁은 사람이라 생각할 것 같아 엘리너는 가까스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다행이네요.”

매키브는 정말 다행인 건지 가슴에 손을 대며 웃었다. 과한 몸짓 같지만 이상하게 그것도 잘 어울려 보였다. 그가 조금씩 팔을 움직일 때마다 마법구가 찰랑거리며 흔들렸다.

엘리너는 무관심하게 보다가 이내 피티에게 고개를 돌렸다.

“재판소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 재판소 일은 잘 끝났어요. 다행히 저희 쪽에서도 증거가 그대로 있어서 그걸로 제출했어요.”

“고생했어요.”

엘리너는 간단하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더는 매키브와 할 말도 없었고 피티가 어련히 매키브를 보내겠거니 생각했다. 어차피 둘이 아는 사이니 조금 얘기하다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엘리너는 분명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피티와 매키브는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지 웃기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엘리너는 이상하게 신경 쓰였다.

매키브가 남자라서 더 그랬다. 생각해 보면 의뢰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여자였다. 신기하게도 남자들은 잘 찾아오지 않았다.

물론 매키브를 감정의 상대로 생각하는 건 아니었지만 조용하던 의뢰소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흐르니 영 거슬렸다.

그래서 엘리너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조용하게 있고 싶어서 한 마디 하려고 했다. 하지만 타이밍 좋게도 피티가 먼저 고개를 들어 엘리너와 눈을 마주쳤다.

“엘리너 님, 내일도 매키브가 와도 될까요? 아무래도 핀 은행 정보를 모으려면 매키브가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서요.”

핀 은행? 그럼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 드레이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핀 은행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래야 그가 정말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운 좋으면 드레이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파악할 수 있어서 꽤 좋을 것이다.

엘리너는 찝찝하긴 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을 내뱉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잘못 된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엘리너는 과감히 그 생각은 지워버렸다. 어차피 매키브는 오래 있을 것도 아닐 것이다.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하면 될 것이고, 거슬리면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엘리너의 의뢰소였다.

“고맙습니다!”

매키브는 엘리너가 동의하자 진심으로 기쁜지 환하게 웃었다. 엘리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개를 돌렸다. 어째서 고민해야 할 게 더 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어느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엘리너는 오늘 따라 하루가 긴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럴 만 했다. 예상치 못한 드레이드의 모습과 매키브의 등장. 그리고 드레이드의 교묘한 방해. 하나만 겪어도 피곤한 일을 한꺼번에 겪었으니...

“엘리너 님 안 가세요?”

마침 피티도 일을 마무리 했는지 매키브와 함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키브는 아예 같이 나가려는지 착실하게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엘리너는 그를 한 번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막 거리로 나오니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럼 엘리너 님 전 이만 가볼게요.”

피티가 의뢰소 문을 잠그고 난 뒤 인사하며 말했다.

“내일 봐요.”

그러곤 엘리너는 몸을 돌려 거리를 걸었다. 그때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찰랑거리는 소리는 덤이었다. 엘리너는 왠지 귀찮아질 것 같아 더 빨리 걸었다. 하지만 매키브는 엘리너 보다 키가 더 커서 그 거리를 단숨에 따라잡았다.

이윽고 다 따라잡은 매키브는 웃으며 엘리너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세요?”

“왜요?”

엘리너는 그저 앞만 보면서 말했다.

“같은 곳에 가면 같이 가려고요.”

“...”

엘리너는 말하지 않았다. 매키브와 굳이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굳이 사는 곳 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음, 혹시 제라크 거리로 가시나요?”

그 말에 엘리너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멈추자 매키브도 따라 멈췄다. 엘리너는 그제야 매키브를 쳐다봤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냥 찍었는데.”

매키브는 의외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엘리너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휙 돌렸다. 아무래도 저 웃음은 정말이지 거슬렸다.

“같이 가요!”

그는 찰랑거리며 그녀 옆에 섰다. 아무리 빠르게 걸어도 매키브는 엘리너를 따라왔다. 결국 엘리너는 적당한 속도로 걸었다. 빠르게 걸어봤자 매키브는 금방 따라왔고 다리만 아플 뿐이었다. 더구나 매키브 때문에 전차를 타는 곳까지 빙빙 둘러서 갈 수도 없었다.

‘귀찮게 왜 그래야 해.’

그래서 엘리너는 그냥 포기하고 적당한 속도로 걸었다. 매키브도 그 걸음에 안정이 된 건지 다소 가볍게 말했다.

“항상 이 시간에 퇴근하세요?”

엘리너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답하기 귀찮았지만 피티와 아는 사이라 시원하게 무시하기도 그랬다. 그리고 그다지 어려운 대답도 아니었기에 최대한 간단하게 말했다.

“네.”

“일은 안 힘드세요?”

“네.”

“혹시 제 마법구 사실래요?”

“네.”

“정말요?”

매키브가 놀라며 말하자 엘리너는 순간 당황했다. 그저 넋 놓고 대답하다 보니 말이 저절로 나간 것이다. 엘리너는 빠르게 대답했다.

“아니요. 잘못 말했어요.”

마침 멀리서 전차가 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있었다. 엘리너는 발걸음을 빨리 하면서 그를 돌아봤다.

“전 이 전차타고 가면 돼요. 그럼.”

엘리너는 매키브가 따라올 새라 빠르게 걸었다. 매키브는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았다. 엘리너는 사람이 가득 찬 전차에 능숙하게 올라탔다. 늘 이 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바깥쪽으로 타야했다.

전차에 올라타자 매키브가 보였다.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엘리너는 예의상 손을 들고는 내렸다.

정말로 마법구를 파는데 진심인 사람 같았다. 저런 사람은 처음이라 엘리너는 적잖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낯설었다. 곧 매키브도 안 보이고 익숙한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엘리너는 손잡이에 기대서 멍하니 주변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인데도 아직 문을 연 가게는 많았고 바쁘게 거리에 사람이 오고갔다. 수도가 좋은 점은 늘 이렇게 활기가 넘친다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엘리너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기가 도는 기분이었다.

저택으로 도착했을 때 드레이드는 보이지 않았다. 베케이드 부인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집안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식탁 위에는 이미 그가 다녀간 건지 저녁이 한껏 차려져 있었다.

[저녁 맛있게 먹어요. 오늘 전 늦을 것 같아요.

- 사랑을 담아 드레이드]

쪽지 옆에는 노란 튤립이 함께 있었다.

엘리너는 노란 튤립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꽃향기를 임의로 입힌 건지 달콤한 냄새가 났다. 꽃은 금방 꺾은 것처럼 싱싱했다. 엘리너는 꽃에서 시선을 거두고 식탁 중앙을 바라봤다. 중앙에는 꽃병이 있었는데 꽃들이 대개 생기가 있었다.

엘리너는 튤립을 식탁 중앙에 있는 꽃병에 꽂아두었다. 노란 튤립이 들어가자 꽃들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남은 건 쪽지였다. 엘리너는 쪽지를 만지작거리다 다시 고이 접었다. 평소 같으면 쪽지와 꽃을 들먹이며 전화를 걸어서 저녁 잘 먹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엘리너는 그저 의자에 앉았다.

낮에 본 드레이드가 생각났다. 이곳에서 보던 드레이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주변도 다르고.

왜 숨겼을까.

왜 굳이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알면 안 되는 사실이라도 있는 건가?

마음속에서 수많은 가설들과 물음들이 뒤섞였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건 없었다. 모두 예상과 의심뿐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식탁 위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짧은 쪽지. 그건 변함없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엘리너는 더 혼란스러웠다. 오로지 변한 건 자신뿐이라서. 엘리너는 포크를 들려다 다시 내려놓았다. 분명 그가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지만, 아무래도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영 내키지 않았다. 드레이드가 없어서 그런 결정은 더 쉬웠다.

엘리너는 식탁에 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음식쓰레기통에 넣었다. 비워진 통에는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 차근차근 쌓여갔다.

엘리너는 그나마 사과 몇 개를 집어 먹고는 침실로 올라갔다. 오늘은 꽤 피곤해서 침대에서 쉬고 싶었다. 주변에는 엘리너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베케이드 부인까지 보이지 않아 저택은 너무나 고요하고 쓸쓸해 보였다.

‘오늘도 일찍 들어가라고 말했나.’

분명 드레이드의 의도가 보였다. 그러나 지금 베케이드 부인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라 엘리너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어차피 베케이드 부인이 있어도 저녁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너는 침실로 들어가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었다. 그리고 침대의 머리맡에 앉아서 예전에 보다 만 책을 펼쳤다. 어느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을 찾는 내용인데 그다지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으나 자꾸 보게 되는 책이었다.

‘분명 재미는 없는데...’

이상하게 다음 페이지로 손이 넘어갔다. 엘리너는 그렇게 한참 책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바라봤다.

오후 11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엘리너는 읽던 책을 덮었다. 이 시간까지 드레이드가 들어오지 않은 적은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엘리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행에서 본 드레이드의 모습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그에 대한 마음은 전혀 식지 않은 것 같았다. 지금 창문을 보며 그를 걱정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랬다.

‘전화를 걸어봐야 하나.’

엘리너는 가로등 불빛만 있는 거리를 바라봤다. 정원에도 등불이 켜져 있지만 미세할 뿐이었다. 창문에서 보이는 거리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조용했다. 그때 저 멀리서 밝은 빛을 띠며 오는 마차가 보였다. 그 마차는 꽤 빠르게 저택 앞에 섰다.

마차에서 곧 누군가 내렸다. 멀리서도 멀끔한 모습이 보였다. 엘리너는 뒤를 돌아서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몇 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를 걱정한 것치고는 생각보다 드레이드는 일찍 나타났다.

‘뭐 때문에 늦은 걸까.’

드레이드가 이런 적이 거의 없어서 더 궁금했다. 엘리너는 고민 하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너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조금 뒤에 문이 열렸다. 드레이드는 문을 닫고 들어오면서 엘리너를 보고는 부드럽게 웃었다.

“안 자고 있었어요?”

“잠이 잘 안와서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잠이 안 왔다. 드레이드는 엘리너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음...”

드레이드를 보고 싶었나? 하지만 그런 이유로 기다린 건 아니었다. 책을 읽다가 시간이 늦은 걸 확인했고, 그가 여태껏 안 들어온 건 의외라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다.

엘리너가 쉽사리 대답하지 않자 드레이드가 엘리너의 볼을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엘리너는 자연스럽게 그를 올려다봤다.

“저녁은 먹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엘리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 먹었다고 한다면 분명 그는 다시 저녁을 만들어줄 것이다. 드레이드에게 그런 수고도 주고 싶지 않았고 저녁을 안 먹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분명 드레이드도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엘리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싶었다. 드레이드도 자신에게 변함없이 대했으니까. 더구나 그에게도 자신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드레이드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들인 음식이었는데.”

드레이드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바깥 냄새와 더불어 그의 따뜻한 숨결이 콧속에 닿았다. 그의 시선은 엘리너의 입술을 집요하게 쳐다봤다. 엘리너는 살며시 고개를 뒤로 뺐다. 그러자 드레이드의 시선이 엘리너의 눈으로 꽂혔다.

그의 눈빛은 의문을 드러냈다. 엘리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당신 혹시 승진했어요?”

그러곤 그의 숨결이 닿지 않을 만큼 뒤로 물러났다. 엘리너가 물러나자 드레이드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여유로운 태도로 말했다.

“승진이요?”

“핀 은행에서 꽤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나요?”

“오래 일하긴 했죠. 지겨울 정도로.”

드레이드가 피식 웃었다. 엘리너는 이러다간 스무고개라도 할 것 같아서 입술을 짓씹었다. 명백한 의도로 질문을 하면 드레이드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모호했다. 그래서 결국 엘리너는 사실을 말했다.

“오늘 핀 은행에서 당신 봤어요.”

“나를요?”

드레이드는 가볍게 말하며 엘리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안 그래도 거의 닿을 듯 말 듯 하던 사이였는데 이젠 거의 그녀의 몸과 맞붙는 상태였다. 그의 숨결이 더 잘 느껴졌고 그의 냄새가 더 짙어졌다. 엘리너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엘리너가 물러난 대로 더 거리를 좁혔다.

그의 허벅지가 엘리너의 다리 사이에 닿았다. 엘리너는 뒤로 더 물러났지만 차가운 나무 벽에 등이 닿았다.

엘리너가 당황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자 드레이드가 싱긋 웃었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볼을 감쌌다. 그의 커다란 손에서 그대로 온기가 느껴졌다. 침이 넘어가고, 숨이 조금씩 가빠졌다.

“당신...”

“제가 그곳에서 유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저만 찾아요.”

드레이드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곧 엘리너와 눈높이가 맞았다. 그는 엘리너와 눈이 마주치자 피식 웃었다.

“엘리너, 오늘따라 당신한테 더 끌리네요.”

곧 그의 입술이 닿았다. 엘리너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자 그가 조금 물러나며 말했다.

“당신이 자고 있으면 참으려고 했는데...”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입술을 보며 말하다가 시선을 올려서 엘리너와 눈을 마주쳤다.

“당신이 이렇게 깨어 있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그가 입꼬리를 올렸다.

“...피곤해요.”

엘리너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만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목 주변에 고개를 숙였다.

“정말요?”

그가 말할 때마다 숨결이 목 주변에 닿아 엘리너는 어깨를 움찔거렸다. 그 몸짓을 눈치 챈 건지 드레이드가 그대로 엘리너의 목을 살짝 물었다.

“드레이드!”

엘리너가 작게 떨며 말했지만 드레이드는 천천히 뭉근하게 엘리너의 목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엘리너는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갔다.

“흣.”

엘리너는 숨을 들이켰다. 오늘만은 그에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다. 엘리너는 겨우 눈을 뜨고는 가까스로 이성을 찾았다. 맞닿은 드레이드의 가슴팍을 살짝 밀었다. 의외로 그는 손쉽게 물러났다.

“엘리너.”

또 그 표정이었다. 마치 뭔가에 상처 받은 듯 가엾게 보이는 표정. 그때도 그 표정 때문에 엘리너는 그에게 넘어갔었다.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랑해요.”

그 말을 하면서 드레이드는 부드럽게 웃었다.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쿵하고 와 닿는 것처럼 멍했다. 숱하게 들었던 말이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의 말의 무게가 더 무거운 느낌이었다. 더구나 왠지 모르게 더 애절하게 들리는 말이었다.

엘리너가 멍하게 있자 곧 그의 입술이 닿았다.

“드레이드... 흣.”

“엘리너, 내겐 당신 밖에 없어요.”

엘리너는 잠을 깨서도 멍했다. 눈만 깜빡이며 천장을 바라봤다.

어제는 솔직히 좋았다. 그에게 안 넘어 가려고 했는데... 엘리너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계속 이렇게 여전히 전과 같이 그래도 되는 걸까. 그러다 엘리너는 순식간에 엘리너의 얼굴은 붉게 변했다. 순간 어젯밤에 그에게 매달렸던 게 생각난 것이다.

엘리너는 혹시나 싶어서 옆을 돌아봤다. 드레이드는 벌써 일어났는지 그가 누웠던 자리는 깔끔했다.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들던 찰나 엘리너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민망한 기억이 자꾸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럼에도 엘리너는 아무렇지 않게 가운을 입었다. 더 생각해봤자 민망할 뿐이었다. 어차피 그전에도 그랬었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하지만 붉은 얼굴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엘리너는 천천히 앞에 있는 거울을 바라봤다. 얼굴뿐만 아니라 어깨나 쇄골 주변에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고 보면 어제 드레이드도 그렇게 다정하지만은 않았다.

“...”

어제 드레이드를 생각하자 얼굴이 더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결국 엘리너는 이 더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가운을 벗고 나니 더 심했다.

‘그나마 목에 그 흔적이 없어서 다행인가.’

드레이드는 그런 면에서 엘리너를 꽤 많이 생각해주었다. 그게 좋아서 드레이드와 결혼한 거긴 하지만.

엘리너는 빠르게 씻었다. 차가운 물로 몸을 적시니 그나마 생각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의뢰소에 갈 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맛있는 냄새가 났다. 엘리너는 차분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드레이드의 뒷모습이 보였다. 넓은 어깨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하얀 셔츠를 입었지만 탄탄하게 굳은 근육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다.

드레이드는 엘리너가 온 걸 알아차렸는지 뒤를 돌며 말했다.

“잘 잤어요?”

엘리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싱긋 웃고는 다시 몸을 돌렸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뭐 도울 건 없어요?”

“거의 다 되어서 당신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드레이드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무래도 가만히 있기 그랬다. 그래서 막 의자에서 일어나려던 찰나였다.

“엘리너.”

문득 드레이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엘리너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를 돌아봤다. 하지만 드레이드는 여전히 뒤를 돈 채였다. 그때 그가 말했다.

“어제 저녁 안 먹었던데.”

“아...”

“못 먹을 정도로 역겨웠어요?”

그제야 드레이드가 몸을 돌렸다. 언뜻 차가움이 배어있는 목소리였다. 엘리너는 손에 땀이 차는 기분을 느끼며 손을 만지작거렸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때 드레이드가 말했다.

“다음에는 꼭 말해요.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드레이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빙긋 웃었다. 순간 아까 들은 말이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다. 어느새 음식이 완성됐는지 그는 능숙하게 엘리너의 앞에 그릇을 놓았다. 엘리너는 그릇을 한 번 보다가 그를 바라봤다. 드레이드는 엘리너와 눈이 마주치자 웃고는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번에는 꼭 다 먹어요.”

엘리너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약간의 죄책감과 그에 따른 꺼림칙한 기분. 문득 엘리너는 식탁 중앙에 있는 꽃병을 바라보았다. 노란 튤립은 여전히 싱싱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어차피 드레이드가 먼저 나를 의심하게 만든 거 아닌가? 따지고 보면 그가 완전하게 믿음을 줬다면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드레이드를 의심할 만 일은 드러났다. 그의 태도는 여전했지만 어제도 그렇고 드레이드는 미묘하게 달랐다. 따지고 보면 그저께 부터 그랬다.

이상하게 그는 조급해했고 엘리너의 사랑을 강요하는 느낌이었다. 하긴 어젯밤도 그렇고... 그렇다면 분명 드레이드도 지금 엘리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드레이드는 누구보다 눈치도 빨랐으니까.

엘리너는 마침 맞은편에 앉은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그러다 그의 손등을 봤는데 붉은 반점은 없었다.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엘리너는 자신도 숨길 이유가 없을 것 같았다. 이미 그에 대해 의심스러운 걸 미리 알아서 나온 약간의 당당한 태도였다.

“숨기는 거요?”

드레이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엘리너를 바라봤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건 왜요?”

오히려 묻는 태도에 엘리너는 옅은 실망감을 느꼈다. 적어도 지금은 그가 진실을 말해줬으면 싶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을 보자마자 아무리 물어도 그는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도 그랬으니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줘도 드레이드는 모호하게 피했다.

엘리너는 옅은 한숨을 쉬었다.

결국 자신이 끈질기게 찾아서 알아낼 수밖에 없었다. 전에는 막상 드레이드를 파헤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언뜻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미안함도 들지 않았다.

엘리너는 저도 모르게 포크를 세게 움켜쥐었다. 어쩌면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몰랐다. 결국 혼자서 해야 하는 일. 엘리너는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녀가 고개를 들자마자 눈을 마주쳤다. 엘리너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어제도 누가 제 일을 방해해서 신경이 거슬렸나 봐요. 요즘 별 게 다 의심이 가네요. 그나저나 제 일 방해하는 사람은 알아보고 있나요?”

드레이드는 그릇에 놓인 음식을 무관심하게 보며 말했다.

“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요?”

엘리너의 말에 드레이드가 고개를 들었다.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잠시 바라봤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면서도 이전과 다르게 진지한 얼굴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이해해달라는 듯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엘리너는 순간 자신이 뭔가를 잊고 있었나 생각하다가 시선을 내렸다.

왜 저런 표정이야. 왜...

오히려 드레이드가 내게 뭔가를 말해줘야지. 왜 나에게 그걸 원하는 것 같은 표정이냐고. 엘리너는 입술을 짓씹었다.

“엘리너.”

드레이드가 불렀지만 엘리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탁만 바라봤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슬쩍 들었다. 그는 마치 엘리너가 쳐다볼 줄 알았다는 듯 싱긋 웃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한다는 걸 이해해 달라는 건가. 아니면 그 모든 걸 말하는 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건가.

어느 부분으로 생각해도 엘리너는 드레이드의 생각을 짐작할 수 없었다.

엘리너는 무력감을 느끼며 차분히 말했다.

“...얼른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저도 바라는 바예요.”

그러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힘들어하는 모습 저도 보기 힘드니까.”

엘리너는 순간 멈칫했다. 어이가 없었다. 그럼 애초에 이런 짓을 왜 저지르는 걸까. 엘리너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시선을 느꼈는지 차분히 그녀를 시선을 응시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건가.’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은 엘리너에게 달린 것처럼 보였다.

엘리너는 그에게서 시선을 내렸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드레이드가 오히려 저렇게 나오니 엘리너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까.

그 방법 밖에는 없었다. 지금 와서 몰래 알아본다고 해서 드레이드가 곱게 그 진실을 말해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히려 더 답답해질 뿐이지.

엘리너는 고개를 들어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그는 엘리너가 무슨 말을 경청하려는 자세였다. 그의 짙은 파란 눈동자는 진지한 빛이 만연했다.

엘리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드레이드.”

엘리너의 말에 드레이드는 아까보다 더 집중한 상태였다. 그의 눈빛이 약간의 호기심으로 빛났다. 마치 엘리너의 말을 모조리 들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드레이드가 저렇게 봐주니 엘리너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일은 어차피 저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저도 조사해볼게요.”

그 말과 동시에 드레이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엘리너.”

드레이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엘리너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랑 제가 같이 알아보면 더 일찍 그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말했다시피 그 사람은 너무 교묘하게 제 일을 방해해서 한 사람이 찾기에 벅찰 거예요. 어차피 전 그동안 남 뒤를 많이 캤으니 어려울 것도 없고요.”

“...”

그는 굳은 얼굴이었다. 아까와 달리 여유로운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 그 기세에 엘리너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미 그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러곤 엘리너는 드레이드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면 그 범인이 스스로 저한테 털어 놓으면 더 좋을 텐데.”

마지막 말은 희망사항이었다. 엘리너는 그 모든 진실을 힘들게 캐기 전에 드레이드가 알아서 털어놓기를 바랐다.

‘내가 멋대로 오해하고 의심하기 전에 적어도 드레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줬으면...’

그러니까 모두가 상처받기 전에 말이다. 엘리너는 잠시 생각하다가 드레이드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다. 그저 차분히 엘리너의 얼굴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가 동요하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표정이 없으니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엘리너는 고개를 내렸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 민망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했다.

‘그래도 뭐라고 말 좀 하지.’

엘리너는 괜히 죄도 없는 고기에 칼을 푹 찔렀다. 육즙과 함께 새빨간 피가 새어나왔다.

“엘리너.”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엘리너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없었으나 어쩐지 분위기가 더 가라앉은 것 같았다.

드레이드는 천천히 말했다.

“음식, 식기 전에 먹어요.”

드레이드에게 나온 말은 너무나 일상적이었다. 마치 아까 말했던 것들은 별 것 아니라는 듯. 엘리너는 옅은 실망을 느끼며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그의 미소는 어쩐지 환한 것처럼 밝았다. 그때 본 미소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한 순간에 반했던 미소.

잠시 동안 엘리너는 할 말을 잃었다.

‘왜 하필 이럴 때 저런 미소를 짓는 거야. 할 말도 생각 안 나게.’

엘리너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그릇 위에 있는 고기만 쳐다봤다. 이미 고기는 식어서 제 맛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무리 봐도 식욕이 돋지 않았다.

“...”

“배 안 고파요?”

“...오늘따라 생각 없네요.”

“당신 저녁만 되면 배고픈 걸 아는데.”

“오늘은 그다지...”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 찰나의 시간 속에 엘리너는 제발 뱃속이 조용해지라고 기도했다. 다행히 뱃속은 그다지 큰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만약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났다면 민망할 것 같았다.

“그럼 먼저 올라갈게요.”

엘리너는 능숙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탁을 벗어났다.

“엘리너.”

엘리너가 고개를 돌리자 드레이드가 말했다.

“이 음식도 싫어요?”

엘리너는 식탁을 쳐다본 뒤 고개를 흔들었다. 그저 그 음식이 끌리지 않았을 뿐이다. 싫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먹고 싶은 건 아닌 음식.

“싫은 건 아니에요.”

끌리지 않았을 뿐이지.

드레이드는 싫지 않다는 말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내 부드럽게 얼굴을 풀었다.

“됐어요, 그럼 올라가서 쉬어요.”

드레이드도 음식을 더는 먹지 않으려는 건지 천천히 일어나서 접시를 들었다. 엘리너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몸을 돌렸다.

예전 같으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를 도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벽이 생긴 기분이었다. 드레이드와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답답했지만 지금 쉽사리 그걸 무너뜨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엘리너는 드레이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지 못했다.

아는 게 힘이라더니.

오히려 드레이드는 엘리너에 대해 많이 알아서 그런지 더 여유로운 태도였다. 그러고 보면 그는 지금 엘리너보다 더 위에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이 일을 말하지 않는 것도 분명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는 게 흠이었다.

엘리너는 눈썹을 찌푸렸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알 수 없어서 답답했다. 하지만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왔기에 생각을 멈추고 계단으로 걸었다. 그러다 주변이 지나치게 조용한 게 느껴졌다.

혼자 올라가는 발걸음도 왠지 무거웠다. 엘리너는 잠시 멈춰 서서 문득 뒤를 돌아봤다.

드레이드는 개수대 앞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슨 심각한 고민이라도 있는 듯. 그의 넓은 어깨가 약간 쳐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한참 그렇게 있다가 몸을 돌렸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뒷모습은 고민이 많아 보였는데 얼굴은 아무렇지 않으니 어쩐지 이상했다.

그러다 드레이드가 그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엘리너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아, 이제 올라가려고요.”

엘리너는 꺼림칙한 마음으로 몸을 돌려서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마음속이 복잡했다.

왜 드레이드가 상처받은 것 같지?

그 음식을 안 먹어줘서?

하지만 이 상황에 맛있게 먹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드레이드가 만들어준 걸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 그와 관련된 모든 게 꺼림칙한데. 더구나 전에는 조금이나마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지만 여전히 엘리너는 아까 그의 뒷모습이 신경 쓰였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났다.

‘휴. 그냥 계단을 곧바로 올라가면 되지. 굳이 왜 드레이드를 봐서는...’

주변이 조용하기도 했고 뒤를 돌아본 건 정해진 본능과 같았다. 그저 아주 약간 드레이드 보다 먼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았던 건데...

드레이드가 그런 모습을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엘리너는 순간 자신이 드레이드에게 약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분명 지금 드레이드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하는데 벌써부터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드레이드에 대한 마음이 접히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상황은 어떻게든 흘러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드레이드가 말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엘리너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갈대구나. 갈대.’

그래도 아직 부부잖아. 어쨌든 엘리너는 드레이드를 믿고 싶었다. 그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게 꽤 한몫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상황에서는 드레이드에 대해 치밀하게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왠지 내일 아침부터 분주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엘리너는 일부러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드레이드가 잠들면 침실로 갈 생각이었다. 이제 엘리너는 천천히 그의 몸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는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라 그가 대놓고 유혹하면 별 도리가 없기도 했다.

엘리너는 이성을 유지하고 싶었다. 더는 그의 몸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와서 서재의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익숙한 것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난장판처럼 어질러진 서류와 마법구였다. 드레이드의 서재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이곳을 치우지 않았다. 척 보기에는 어지럽게 보였지만 각각 제자리가 있었다. 엘리너는 필요한 걸 이곳에서 찾을 때도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복잡하긴 했지만 이미 머릿속에 다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에는 가문의 보물을 찾기 위한 마법구가 반짝이고 있었다.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지만 아직 목걸이는 찾지 못했다. 하루 종일 마법구를 돌리는데도 소식이 없었다.

엘리너는 초록색 마법구를 잠시 바라보다가 책상에 어지럽게 굴러다니는 마법구를 들었다.

손봐야할 게 많은 마법구였다. 이전에 이미 포기해서 손쓸 방도가 없었지만 시간을 때우기에는 제격이었다. 고쳐지지도 않을 마법구를 한참 이리저리 손볼 때였다.

가볍게 똑똑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너, 잠깐 들어가고 돼요?”

드레이드의 목소리였다. 이미 드레이드가 이곳에 찾아 올 거라고 예상한 터라 엘리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들어와요.”

곧 문이 열리고 드레이드가 들어왔다.

“엘리너, 안 자요?”

“전 이것 좀 손보려고요.”

드레이드는 엘리너가 앉아 있는 책상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엘리너가 손보고 있는 마법구를 보더니 가볍게 말했다.

“고장 났잖아요.”

“고치면 돼요.”

“이미 다 망가져서 손쓸게 없어 보이는데.”

순간 엘리너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가 놀라서 바라보자 그가 책상을 짚으며 허리를 숙였다. 순식간에 엘리너와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너무나 순식간의 일이라 엘리너는 물러날 틈도 없이 그를 바라봤다.

“당신...”

“당신이 일찍 갔을 때 제가 고치려고 했는데 영 못 쓰겠더라고요.”

“그럼 이걸 왜 그대로 놔뒀어요?”

“당신이 일부러 그렇게 놔두었을 것 같아서요. 왠지 심심할 땐 그걸 손 볼 것 같기도 했고.”

드레이드가 싱긋 웃었다.

엘리너는 헛웃음을 지었다.

‘뭐야,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아는 거지?’

아니, 엘리너 자신 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았다.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안 피곤해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엘리너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모든 게 들킨 것 같아 엘리너는 고개를 내렸다. 하지만 드레이드가 집요하게 그녀와 눈을 맞췄다.

“엘리너. 요즘 어디 안 좋아요?”

“왜요?”

“당신 자꾸 음식도 안 먹고, 아, 그 사람 때문에?”

“...”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조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너무 신경 쓰니까.”

그 소리에 엘리너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건...!”

드레이드와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엘리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드레이드도 천천히 일어나서 그녀와 눈을 맞추었다.

“엘리너.”

그는 엘리너 쪽으로 한 발자국 다가왔다.

“...”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그 일에 손 떼요.”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드레이드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엘리너의 볼을 살며시 만졌다.

엘리너는 고개를 돌렸다. 드레이드는 피식 웃고는 손을 내렸다.

“당신 삐진 얼굴도 귀여운 거 알아요?”

“삐진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건데. 엘리너는 화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은 입속으로 짓씹었다. 어차피 말해봤자 그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여유롭게 대할 게 뻔했다. 이 상황에서.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잠시 바라보다가 가볍게 말했다.

“전 당분간 델프스에 갔다 올 거예요.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필요한 건 없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엘리너가 그를 바라봤다.

“델프스요?”

“일이 생겨서요.”

“은행에서 출장 갈 만한 일이...”

“익명의 사람이 거액을 저희 은행에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와야 해요.”

“말단 은행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드레이드가 웃었다.

“전 그냥 따라 가는 거예요. 그때도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저만 찾는다고.”

정말 그 일 때문에 가는 건가. 델프스는 황태자의 별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은행에서만 일하던 드레이드가 갑자기 그곳으로 왜 가는 걸까...

순간 엘리너는 무언가 흥미로운 생각이 났다.

‘만약 이 기회에 드레이드를 추적한다면?’

어차피 핀 은행은 보안이 철저해서 그가 일하는 곳까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 그를 추적한다면...

추적이 성공한다면 드레이드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운이 좋다면 그의 정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기회였다.

엘리너는 미소를 지었다.

“...잘 갔다 와요.”

“섭섭하지 않아요?”

“어차피 일이잖아요. 제가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도 되는데.”

“네?”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요.”

“하지만...”

순간 드레이드가 엘리너의 볼에 입을 맞췄다. 엘리너가 놀랄 틈도 없이 드레이드는 그녀의 입술을 맞추었다.

“흡, 드레이드.”

엘리너는 겨우 그를 밀었다. 그는 순순히 밀려가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일 동안 당신도 못보고, 하루 종일 당신만 생각날 텐데.”

“...”

“오늘 밤쯤은 이런 고물은 잊고 나 봐주면 안 돼요?”

“...”

엘리너는 이성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자꾸 허벅지에 닿는 그의 것과 그의 젖은 숨결, 그리고 자꾸만 그녀의 눈을 쳐다보는 짙은 눈동자가 신경 쓰였다.

더구나 3일이니 그가 괴롭긴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언뜻 아까 본 그의 뒷모습도 생각나고...

부드러운 느낌에 엘리너는 눈을 떴다. 드레이드의 파란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는 싱긋 웃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엘리너는 결국 인정했다. 그의 몸은 이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쯤 되면 아무리 그에 대한 마음이 식어도 몸은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긴, 처음부터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넋 놓게 만들었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엘리너는 드레이드를 차분히 바라봤다. 이미 드레이드는 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탄탄한 어깨에 하얀 셔츠가 잘 어울렸다. 벗은 몸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그는 아무 옷이나 잘 어울렸다. 그러다 엘리너는 순간 그를 추적할 마음에 서둘러 말했다.

“지금 가는 거예요?”

드레이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일어나는 것만 보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엘리너는 조급한 마음에 말했다.

“잠깐만요.”

엘리너는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집무실 어딘가에 추적 장치가 있을 것이다. 그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추적 장치를 달아야했다. 그러면 한결 그를 따라잡기도 편하고 뒤를 캐기도 용이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요. 줄 게 있어요.”

드레이드는 나가려다 엘리너를 바라봤다. 그는 엘리너가 그런 모습이 신기한 듯 눈을 깜빡였다.

“어디 가지 말아요.”

엘리너는 혹시나 드레이드가 먼저 나갈까 싶어서 나가기 전 신신당부했다.

“천천히 와요.”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안심시키듯 차분히 의자에 앉았다. 엘리너는 그가 앉는 걸 보자마자 문밖으로 뛰어갔다.

집무실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어제의 여파로 여기저기 물건이 떨어진 게 보였다. 엘리너는 머릿속에 기억하는 대로 추적 장치가 있을 만한 책 사이를 뒤졌다. 그나마 의뢰가 많았을 때 대량으로 사두었던 추적 장치였다. 엘리너는 책상 사이를 뒤지다가 미소를 지었다.

겉보기에는 엄지손톱만한 종이쪼가리 같지만 상대의 미세한 체온으로 인해 마법이 발동해서 추적기가 발동한다. 엘리너는 잠시 바라보다가 서둘러 서랍을 뒤졌다.

곧 엘리너의 손에 작은 상자가 만져졌다. 상자를 열자 미세하게 빛이 나는 핀 클립이 있었다. 셔츠 단추 사이에 치장하는 용이었는데 주로 남자들이 쓰는 핀 클립이었다. 겉 부분은 은빛으로 빛이 났는데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깔끔했다.

엘리너는 추적 장치를 핀 클립에 붙였다. 그러자 추적 장치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둔갑하기 시작했다. 감쪽같았다. 엘리너는 혹시나 싶어서 추적 장치를 붙였던 부분을 만지작거렸다. 다행히 잘 안착되었는지 거친 부분 없었다. 원래 핀 클립의 금속 촉감이었다. 미끄러운 쇠 감촉.

“...”

엘리너는 잠시 핀 클립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간직하던 아버지의 핀 클립이었다. 드레이드에게 이번 2주년 결혼기념일에 주기로 한 것이었다. 기분이 묘했다. 어쨌든 그때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선물이 이렇게 사용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엘리너는 잠시 핀 클립을 만지작거리다가 방 밖으로 나갔다. 우선 드레이드에게 이걸 지금 주는 게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 결혼 2주년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의 의심을 자연스럽게 거두고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다.

엘리너는 거의 뛰다시피 방으로 갔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다. 드레이드는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가 시선을 들었다.

그는 엘리너가 오자마자 일어났는데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뛰어왔어요?”

“...당신 급할 것 같아서요.”

엘리너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하자 드레이드는 엘리너에게 다가왔다. 그는 엘리너의 흐트러진 머리를 귀 뒤로 곱게 넘겨주었다 손끝에 닿는 온기가 꽤 부드러웠다. 숨은 조금씩 잦아들었으나 그가 보는 눈빛과 아직도 머리에 머물러 있는 그의 손이 신경 쓰였다.

“뭐 때문에 그렇게 뛰었어요?”

시선을 들자 드레이드는 한껏 기대하는 얼굴이었다.

엘리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숨을 가다듬고 그에게 핀 클립을 내밀었다.

“이거 끼고 가요.”

그는 핀 클립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마음에 드는 듯 했다. 그는 곧바로 가슴 주변의 단추 사이에 핀 클립을 능숙하게 끼었다.

“어때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엘리너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하얀 셔츠에 깔끔한 핀 클립이 있으니 많이 튀지도 않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고마워요.”

드레이드는 엘리너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웃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듯 기뻐보였다.

“이걸 보면서 당신 생각할게요. 당신 덕분에 시간은 빨리 갈 것 같네요.”

엘리너는 마음속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그에게 미소 지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미소가 최선이었다.

드레이드는 꽤 서둘러야 하는지 곧바로 문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그는 몸을 돌렸다.

“오늘 아침은 꼭 먹고 가요.”

엘리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드레이드는 미소를 짓고는 문을 나갔다.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아침부터 뛰어다녔던 탓인지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았다.

엘리너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잘한 거겠지?’

잘한 걸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안 좋았다. 드레이드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속인 것 같기도 하고, 못할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엘리너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어차피 이건 드레이드가 자초한 일이잖아.’

애초부터 그가 모든 사실을 곧이곧대로 말했다면 이렇게 서로를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엘리너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핀 클립을 주었을 테고.

식탁에는 벌써 한 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 위에는 드레이드가 써 놓은 것 같은 쪽지가 있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만들었어요. 부디 이번에는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3일 뒤에 봐요.

- 당신의 드레이드]

엘리너는 쪽지를 바라보다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훑어봤다. 사과 샐러드, 사과 절임, 사과 소스가 들어간 샌드위치.

모두 엘리너가 좋아하는 사과가 들어간 음식이었다. 거기다 드레이드가 정말 정성을 쏟은 건지 음식 장식도 세세하고 화려했다. 먹기 아까울 정도였다. 그전의 음식들도 먹을 만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 작정해서 만든 것 같았다.

“버릴 수도 없게 만들었네.”

정말이지 이 음식들은 그랬다. 오히려 버리기에는 죄책감이 들 정도였다. 할 수 없이 엘리너는 의자에 앉았다.

엘리너는 근처에 있는 사과 샐러드를 한입 먹었다. 먹자마자 상큼한 향이 퍼지면서 아삭한 식감이 느껴졌다.

“...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법의 소스라도 넣었는지 전과 다르게 소스가 더 상큼하고 맛있었다. 엘리너는 음식을 씹으면서 드레이드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마치 정말 못할 짓이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안 좋았다.

‘대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속 시원히 말하면 이런 마음은 없을 텐데.’

엘리너는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다.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드레이드가 잘해준 기억밖에 없었다.

“아니면 돈 문제인가? 도박해서 돈을 날려서 나에게 그런 말하기 껄끄러운 건가?”

하지만 여태껏 드레이드와 같이 살면서 그는 도박에 한 번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간단한 게임도 싫어했다. 그리고 그런 일이라도 드레이드는 돈이 많았으니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본 그의 자산은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럼 설마 여자?’

여자 문제라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입맛이 싹 가셨다. 엘리너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설마...’

하지만 지금까지 드레이드가 한 걸 보면 그런 일은... 왠지 모르게 찝찝했다. 순간 그때 의뢰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제라키드 부인은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의뢰소에 왔었다.

“휴, 집에서는 워낙 잘해줘서 뒤에서 그런 짓을 할지 몰랐어요. 저보다 어린 여자를 꾀어내서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라키드 부인은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를 줄 몰랐다는 듯 한참을 의뢰소에서 떠들었다.

“엘리너 님도 조심하세요. 남편이 아무리 자상하고 다정해도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 당시 엘리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웃었다. 드레이드가 그런 일을 저지를지 예상도 가지 않았고 그가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의심스러웠다. 엘리너는 순간 소름이 돋아 팔을 만지작거렸다.

“그럼 여태까지 말하지 않았던 게 여자 문제였던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새된 목소리가 나갔다. 생각해보면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아예 여자 문제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는 밖에서 헛짓거리를 하는 것이다. 그때 제라키드 부인의 남편처럼.

‘그럼 왜 굳이 내 일을 방해했던 거지?’

드레이드가 엘리너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엘리너는 드레이드를 의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여자 문제였다면 나 모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것이다. 여태껏 드레이드와 함께 살아오면서 그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눈치가 빠른 편이었다. 심지어 엘리너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본 것처럼 사람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다.

마냥 여자 문제라고 하기에는 여러 허점이 있었다.

그래, 여자 문제일리 없지.

엘리너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자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다.

그럼 대체 왜 내 일을 방해한 거지?

다시 원점이었다. 엘리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다.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답답했다. 풀리는 게 없으니 더 그랬다.

엘리너는 사과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문득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그러다 이제 양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서 한참 쳐다보다가 이내 다 입에 넣었다.

사과 샌드위치가 워낙 푸짐해서 다른 음식들은 그저 맛만 보고 잘 덮어두었다. 저녁에 퇴근하면 다시 먹을 예정이었다. 아무래도 엘리너는 이젠 음식을 버리는 건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깝기도 하고 드레이드가 이렇게 노력을 들이는데 영 미안했던 것이다.

그나마 여자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 엘리너는 약간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렇게 대충 부엌을 정리하고 주변을 둘러봤다. 저택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침에 늘 같이 있던 드레이드가 없으니 더 빈 느낌이었다.

엘리너는 드레이드가 늘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항상 그는 엘리너의 맞은편에 앉았다. 엘리너는 빈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이 빈집을 보고서 여태껏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생각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드레이드는 이 저택에 없었다. 엘리너는 드레이드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가 대체 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드레이드에 대해 알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고.

그리고 드레이드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었다. 곧 그 말은 드레이드의 집무실이나 침실을 뒤지면 되는 것이다.

‘왜 멀리서 남편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을까. 바로 앞에 그 증거가 있을 줄 모르는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엘리너는 곧바로 드레이드의 집무실로 올라갔다. 지금이 좋은 기회였다. 드레이드도 3일 뒤에 돌아온다고 했다. 그러니 그가 혹시나 들어올까 봐 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였다.

마치 하늘이 기회라도 준 것 같았다.

엘리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의 집무실을 열었다. 엘리너의 집무실과 다르게 그의 집무실은 무척이나 깔끔했다. 먼지 한 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은 정돈되어 있었다. 엘리너는 마치 처음 보는 곳처럼 주변을 신기한 듯 둘러봤다.

사실 드레이드의 집무실을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다. 애초에 그가 집무실에 오래 있지도 않았고 엘리너가 들어갈 이유도 없었다.

생각보다 집무실 안에는 여러 책이 많았다. 엘리너가 싫어하는 수리 공식에 관한 책부터 역사학까지 분야도 다양했다. 엘리너는 서재에 있는 책 제목을 훑어보다가 과연 그가 어디에 중요한 물건을 두었을지 생각했다.

“나 같으면 서랍 안에 두었을 것 같은데...”

엘리너는 곧장 그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혹시나 싶어서 책상 위를 먼저 살폈다. 하지만 워낙 깔끔하게 치워 놓아서 뭘 발견할 것도 없었다. 죄다 은행 관련 서류밖에 없었다. 딱히 별로 의심할 것도 없는 서류였다.

엘리너는 그쯤에서 책상 위를 포기하고 서랍을 열어보았다. 다행히 서랍은 잠기지 않고 부드럽게 열렸다. 그러나 별다른 건 없었다. 늘씬하게 생긴 검은 잉크 펜과 아직 뜯지도 않은 잉크통, 편지 칼, 깔끔하게 잘린 종이 밖에 없었다.

엘리너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른 서랍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나머지 서랍도 열어보았다. 나머지도 똑같았다. 아예 물건 자체가 들어있지 않은 서랍도 있었다.

‘뭐야, 여기서 일하는 건 맞아? 아니면 그냥 책만 읽는 건가.’

주변이 너무 깔끔해서 과연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차라리 엘리너의 집무실처럼 더러웠다면 찾는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이곳은 너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뭘 찾을 것도 없었다. 죄다 그냥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였다.

엘리너는 힘없이 마지막 서랍을 열었다. 아까 아무것도 없는 서랍을 보고는 의욕이 조금 사라졌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막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무언가 덜컹거리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너는 순간 의욕이 솟는 것 같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엘리너는 서둘러 서랍 안을 살폈다. 언뜻 보면 텅 빈 것 같은데 분명 그 소리가 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엘리너는 손을 더듬거리며 소리가 들린 것 같은 쪽으로 뻗었다. 그러자 곧 단단한 나무 상자가 만져졌다. 만지자마자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나왔다.

“그럼 그렇지.”

이곳이 드레이드가 사는 곳이었는데 뭔가를 보관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분명 중요한 물건일 것이다.

엘리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다. 나무 상자는 의외로 크기가 작았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뚜껑 부분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엘리너는 자물쇠를 보고 좌절하지도 않고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자물쇠를 보고 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보다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자물쇠라면 별 거 아니었다. 여태껏 엘리너는 수많은 사람의 뒤를 캐고, 보물을 찾으면서 자물쇠 정도는 눈 감고도 풀 수 있었다.

엘리너는 편안한 마음으로 머리에 항상 꽂아놓는 핀을 빼고는 자물쇠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맞물리는 지점을 조금씩 찾으면서 미세하게 핀을 돌렸다. 그렇게 몇 번 돌리다보니 어느새 맞물리는 지점이 있었다. 엘리너는 고민하지 않고 힘주어 핀을 돌렸다. 그러자 철컥 거리는 반가운 소리가 들렸다.

엘리너는 핀을 내팽개치고 곧바로 나무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열자마자 엘리너는 적잖이 실망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그건 다름 아닌 키키드 크림 통이었다. 그것도 거의 10년 전에나 나온 통이었다. 엘리너는 천천히 통을 들어올렸다. 가벼운 걸 보니 다 쓴 모양이었다. 주변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몇몇 글씨가 지워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건 비매품이라는 글씨였다.

다 쓴 키키드 크림 통. 그것도 10년 쯤 된 것.

소중한 것이라도 되는 듯 꽁꽁 숨겨져 있었다. 엘리너는 문득 어릴 때 키키드 크림을 어떤 소년에게 준 걸 떠올렸다. 늘 키키드 크림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 소년에게 준 것이다.

‘그럴 리가.’

그 소년이 남편일리 없었다. 그때 소년은 너무나 꼬질꼬질했고..., 그러고 보니 너무 꼬질꼬질해서 어떻게 생긴 건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얼굴에 거뭇거뭇한 게 많이 묻어 있었던 것만 기억날 뿐. 아니, 눈동자는 아주 새파랬던 것 같기도 하고... 머리도 검은 재처럼 까맸었는데.

엘리너는 드레이드의 얼굴을 생각했다. 파란 눈, 검은 머리.

‘설마...’

엘리너는 당시 수도에 가까이 살면서 꽤나 부유한 삶을 살았다. 네스 가문이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 분수가 멋진 곳? 이라고 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당시 엘리너의 어머니는 키키드 크림을 한창 개발해서 팔고 있었다. 엘리너의 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늘 키키드 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엘리너의 어머니는 키키드 크림을 한 자루씩 엘리너의 방 안에 두었다. 엘리너는 그럴 때마다 옅은 짜증을 냈다.

“어머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잘 생각해야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주다간 동정한다고 생각하고 싫어할 걸요?”

“엘리너, 그건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 문제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으려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고 했잖니.”

엘리너의 어머니는 늘 태도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엘리너는 그 태도를 쉽사리 바꾸기 쉽지 않았다. 늘 듣는 말이었지만 엘리너는 오늘 따라 그 말이 꽤 마음에 꽂히는 것 같았다.

“...제 성격이 원래 이런 걸 어떡하겠어요.”

엘리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그녀의 어머니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엘리너가 앉아있는 침대 쪽으로 걸어가서 옆에 앉았다.

“그래도 항상 이 키키드 크림은 갖고 다니렴.”

엘리너의 어머니는 키키드 크림 통을 그녀에게 주었다. 엘리너는 통을 받고는 이리저리 살피다 비매품이라고 적힌 걸 보았다.

“팔지 않는 걸 준다고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런 걸 자세히 뜯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다.”

엘리너는 한숨을 쉬었다. 늘 어머니는 과할 정도로 남을 도와주는 걸 극성이었다. 특히 다친 사람들에게.

엘리너의 어머니가 키키드 크림을 개발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저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돌아가셨다. 그때 피를 멎는 약을 발랐지만 어떤 성분의 부작용 때문에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피를 멎는 약은 물론 근육통이나 멍이 들었을 때도 바르면 좋은 종합 크림 약을 개발했다. 모두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다. 그게 키키드 크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그랬다. 먼저 나와 있는 약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데 힘들었다. 물론 그 약에 피를 멎는 성분이 추가되었고 천연 성분이었지만 애초에 그런 약은 다른 약이 더 약효가 뛰어나서 종합 크림보다는 단일 성분을 더 선호했다.

늘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고 어머니에게 말해도 그녀의 어머니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쓸 거라고 했다. 엘리너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매일 어머니는 같은 말을 했다.

“엘리너, 항상 마음을 바르게 써야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엘리너는 그런 말을 수 백 번 들었지만 쉽사리 어머니 말대로 살지 못했다. 본래 엘리너의 성정이 그랬다. 하지만 대답은 늘 잘했다.

“네.”

그녀의 어머니는 그 말에 만족한 듯 방을 나갔다. 잠시 뒤 하녀가 문을 두드렸다. 아마 드레스 문제일 것이다.

“엘리너 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하녀는 밝은 얼굴이었다.

“엘리너 님. 그때 주문하신 드레스가 완성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니야, 나도 같이 가.”

“괜찮으시겠어요? 오늘은 시장이 열리는 날이라 많이 붐빌 것 같아서요.”

“괜찮아, 그 드레스도 얼른 보고 싶고 오랜만에 외출 좀 해야겠어.”

어머니가 늘 하던 잔소리는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안 좋았다. 엘리너는 이 기분을 얼른 풀고 싶었다. 엘리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에 커다란 자루가 있었다. 키키드 크림 통이 가득 든 자루였다. 어머니는 늘 변함이 없었다.

엘리너는 고개를 흔들고는 차분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눈치 빠른 하녀가 재빠르게 말했다.

“그럼 얼른 마차 준비하라고 할게요.”

“드레스 입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 마차 준비하는데 시간 더 오래 걸리잖아. 넌 내려가서 마차나 준비해.”

“네.”

하녀는 빠르게 문을 나갔다. 엘리너는 옷장을 열어서 가벼운 외출용 드레스를 입었다. 혼자서 입기에 편한 옷이었다. 거울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이번에 맞출 드레스를 상상해보았다.

분명 만족스러울 만한 드레스일 것이다.

엘리너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어머니가 놓고 간 키키드 크림 통이 보였다.

‘...아무래도 챙겨야겠지.’

늘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말이었고 안 챙기기에도 뭣해서 할 수 없이 엘리너는 키키드 크림을 챙겼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받는 걸 좋아할지 알 수 없었다.

‘왜 자꾸 쓸데없는 걸 강요하는 걸까.’

엘리너는 항상 어머니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여겼다. 그저 알아서 각자 살아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다. 그렇게 극성맞게 사는 게 아니라.

키키드 크림 통을 챙기면서도 엘리너는 영 떨떠름했다.

빠르게 달리던 마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엘리너 님,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가야겠는데요?”

“왜?”

“시장이 너무 붐벼서 마차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엘리너는 마차 창밖을 슬쩍 바라봤다. 확실히 전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그저 보기만 했는데도 생기가 느껴졌다.

“아니면 제가 가서...”

“아니야,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직접 가야지. 그 드레스가 어떤지 얼른 보고 싶어.”

엘리너는 다소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다. 이번에 맞춘 드레스는 엘리너가 원하는 색과 원단을 골라서 맞춘 옷이었다. 특히 엘리너가 고른 원단은 구하기 힘든 것으로 이번에 얼마 들어오지 않은 원단이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드레스를 맞추었는데 오늘이야 말로 그동안 드레스를 기다린 보람을 느끼고 싶었다.

“엘리너 님, 조심히 내려오세요.”

하녀가 손을 내밀었다. 엘리너는 하녀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려왔다. 주변에서 힐끔 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엘리너는 그 시선을 무시하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늘 시장이 안서는 날에만 다녔는데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니 또 새로웠다.

“엘리너 님, 이쪽이에요.”

하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너를 보호하며 갈 길을 재촉했다. 엘리너는 하녀에게 고개를 돌리곤 따라갔다. 그렇게 사람 사이를 지나치다 문득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다.

“좋은 말로 할 때 우리한테 왔으면 됐잖아.”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렸다. 퍽퍽 대며 맞는 소리는 덤이었다. 엘리너는 걸음을 멈췄다. 걸음을 멈추자마자 하녀가 돌아봤다.

“엘리너 님 왜요? 혹시 속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

“그럼...”

엘리너는 골목 깊숙한 곳을 바라봤다. 여러 사람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맞고 있는 건 분명했다. 그것도 다수에게.

엘리너는 주머니에 있는 키키드 크림을 만지작거렸다. 그냥 지나칠까. 어차피 지나쳐도 엘리너에겐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엘리너와 아무 상관없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엘리너는 망설였다. 어머니가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하는 말 때문에 세뇌라도 된 건지. 아니면 맞고 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 탓인지.

엘리너는 혹시나 주변을 둘러봤다.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말릴 사람이 없나 싶어서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 어두운 골목 안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골목 안과 엘리너가 서 있는 거리는 전혀 다른 세계 같았다.

“엘리너 님?”

하녀가 다시 엘리너를 불렀다. 그 소리에 엘리너는 키키드 크림 통을 움켜쥐며 말했다.

“우리 올 때 기사들도 같이 왔지?”

“아마 이 근처에서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좀 구해주자.”

엘리너가 어두운 골목 안을 가리켰다. 하녀는 골목 안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리 기사들이 있다고 해도 저런 사람과 엮이면 안 좋으실 텐데요.”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미 내가 봤고 어머니가 한 말도 있으니까.”

엘리너는 키키드 크림을 한 번 더 만져보았다. 손에는 어느새 땀이 차서 만지는 내내 축축했다.

“엘리너 님, 무슨 일이십니까?”

마침 엘리너를 따라오던 기사들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너는 그들이 때맞추어 등장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어두운 골목 안을 가리켰다.

“저기 좀 어떻게 해봐. 한 사람이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들은 안을 슬쩍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너의 가문이 고용한 기사들은 꽤나 훌륭한 기사였다. 몇 분도 되지 않아 한 사람을 때리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다. 엘리너는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왠지 모르게 눈을 맞추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던 사람들이 골목을 다 빠져나갔을 때, 엘리너는 골목 안을 바라봤다.

기사들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사람은 꽤 많이 맞았는지 멀리서만 봐도 힘겨워보였다. 엘리너는 천천히 숨을 헐떡이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다.

어두운 골목을 걷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꽤나 긴장되었다. 심장이 뛰고 괜한 일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약간 후회되기도 했다.

멀리서도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새파란 눈동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 눈빛 때문에 왠지 모르게 더 긴장되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꽤나 많이 다친 모양이었다. 얼굴에는 피 묻은 상처가 있었고 몸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서 거지꼴과 다름없었다. 거기다 흙바닥에는 피가 여기저기 튀어있었고 옷에는 끔찍한 핏자국이 있어서 엘리너는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몰라 그의 눈만 바라봤다.

“...”

그의 눈동자는 다른 곳과 달리 유난히 짙은 빛을 띠었다. 하지만 쳐다보는 시선에는 반항기가 묻어있었다. 마치 날 왜 도와 주냐는 뜻 같았다.

역시 괜한 오지랖을 부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냥 가기에도 민망했다. 결국 엘리너는 키키드 크림 통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차피 그는 다친 곳도 많아 보이니 키키드 크림이 꽤 필요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거친 몰골을 마냥 보기 불편했다. 엘리너는 옅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곤 어색하게 키키드 크림 통을 내밀었다.

“이거 바르면 나을 거야. 앞으로 맞을 곳에 발라도 예방효과도 있을 거고.”

사람을 많이 도와준 적도 없었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엘리너는 너무나 어색했다. 다소 말투가 딱딱했으나 엘리너는 할 말은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상대방에서 가져가는 손길이 없었다.

그럼 그렇지.

적어도 어머니는 틀렸다. 사람들은 선뜻 받지 않는다. 이렇게 온 몸을 맞아서 숨을 헐떡대도 말이다. 할 수 없이 엘리너는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은 부드러운 말투였다.

“받아. 우리 저택에 이거 많아. 너무 많아서 주는 거야. 너 동정하는 게 아니고.”

엘리너는 잠시 기다렸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나도 손은 무거웠다. 여전히 그는 받지 않았다. 민망했다. 남들에게 거절 받는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마음속이 불편했다. 그러나 마냥 키키드 크림을 다시 가져갈 수 없었다.

더구나 기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키키드 크림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웃겼다. 그를 도와준 것도 이 키키드 크림 때문이었으니까.

할 수 없이 엘리너는 몸을 숙여서 키키드 크림을 땅바닥에 두었다. 그나마 핏물이 튀지 않은 곳이었다.

“필요 없으면 버리든가 다른 사람한테 줘.”

“필요 없으면 버리든가 다른 사람한테 줘.”

그러곤 엘리너는 물러났다. 여기서 더 말해도 그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엘리너는 몸을 돌려서 골목을 나갔다.

괜히 도와준 건가.

너무 오지랖을 부렸나.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자 엘리너는 아무래도 자신과 어머니가 맞지 않다고 느꼈다. 이런 시장 바닥이야 그런 사람은 흔했다. 심지어 그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맞고 있을 줄 누가 알겠는가. 차라리 그냥 무시하고 갔다면 적어도 이런 찝찝함은 들지 않았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의 반항기 있는 시선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건드린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기분도 오래 가지 않았다. 곧 엘리너는 드레스 상점에 도착했고 드레스를 보자마자 기분이 풀렸다.

드레이드는 옆에 놓인 괴상한 약통을 바라봤다. 온통 초록빛이었고 처음 보는 약이었다.

이딴 걸 왜 줘.

그냥 내버려두지.

그는 피 섞인 침을 뱉었다. 죽으려고 했다. 어차피 버려진 인생에 별 미련은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 인생을 버렸고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쓸데없는 욕심에 탄생한 그는 온갖 역경을 경험하는 중이었다.

지금도 나름대로 살아보려다가 시장 바닥의 철저한 생태계에 밟혔다. 이 시장을 잡고 있는 엘렌토 패거리는 드레이드를 못마땅하게 봤다. 드레이드가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렌토 패거리는 대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자릿세라는 명분으로 돈을 거뒀다. 빌붙어 사는 기생충과 같았다.

드레이드는 그런 일에는 신물이 났다. 처음부터 드레이드는 그런 식으로 탄생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지우라고 하던 아버지의 말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낳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드레이드를 거부했다. 어머니는 드레이드의 존재에 대해 한탄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후 드레이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버려졌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는 책임감도 없이 어머니를 유혹했고, 어머니는 생각 없이 아버지를 믿었다. 그들의 역겨운 욕심 속에 드레이드만 남겨졌다.

애초에 아버지는 드레이드에게 관심조차 없었다. 그래도 그는 살기 위해 이런 바닥에서 여러 일을 전전하며 살았다. 주로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엘렌토 패거리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드레이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기생충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다고.

엘렌토 패거리는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드레이드가 막 광산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노려서 그를 뒷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맞으면서 드레이드는 생각했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는 살았다. 죽는 것도 어려웠다.

“젠장.”

드레이드는 한껏 욕을 내뱉은 뒤 일어나려고 허리를 들었다. 하지만 옆구리 쪽에 거하게 맞았는지 쓴 고통이 몰려왔다. 그는 입술을 짓씹으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땅에 짚었다. 그러다 무언가가 잡혔다. 딱딱하고 차갑고, 불편한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아까 오지랖 넓은 여자애가 주고 간 것이었다. 그가 받지 않자 옆에 두고 간 모양이었다.

드레이드는 눈썹을 찌푸렸다. 옆구리에서 올라온 고통은 이제 온 몸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놈들이 제대로 때린 것이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일어나지도 못했다. 드레이드는 다시 약 통을 보았다. 차라리 죽었다면 이런 고통이 아무렇지 않겠지만 생생한 상태에서 느끼는 고통은 심히 불쾌했다.

드레이드는 여자애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거 바르면 나을 거야. 앞으로 맞을 곳에 발라도 예방효과도 있을 거고.”

예방효과?

솔직히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등신같이 끙끙대며 마냥 있을 순 없기에 그는 약 통을 열었다. 얼른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랐다. 그는 우선 아픈 곳부터 발랐다. 싸한 박하향이 코를 찔렀지만 아픈 곳에 바르니 이상하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다.

몇 분 뒤 드레이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걷는 건 불편했지만 여자애가 한 말이 마냥 거짓말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는 걸으면서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한 작태였다. 그나마 아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서 다행인가 싶었다. 머리 사이로 흐른 피가 볼 사이로 흘려 내렸다. 그는 손등으로 피를 닦았다. 볼을 스치면서 입술에 피가 묻었다. 언뜻 느껴지는 피 맛이 썼다.

숱하게 느껴본 맛이었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졌다.

드레이드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높은 첨탑이 보였다. 황제 궁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었다. 아버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버렸다. 기꺼이 어머니와 자신을 도울 수 있는데도.

아마 아버지가 원한 게 이건가 싶었다. 이런 꼴로 살다가 죽는 것. 어차피 그에게는 사생아 따위 필요가 없었으니.

생각해 보면 드레이드의 어머니는 너무나 단순했다. 여우같이 생각하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으니.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어머니의 죽음이 갑자기 불쌍해졌다.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의 원인은 아버지였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한 번 쯤은 시선을 줘야했다. 그럼 적어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냥 버리면 다인가.

드레이드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불편하게 걸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약통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나마 여자애가 준 약으로 인해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생각도 오래 할 수 없었을 테니까.

죽다 살아나서 그런지 이상하게 머릿속이 생생했다.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다. 전에는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 의지가 생겼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직접 드러내지 않아도 은연중에 불쾌하게 생각하도록. 내다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그는 자잘한 놈들을 손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여태껏 그저 묵묵히 일만 하면서 지냈다. 상황이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랐고 굳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또다시 기생충들이 설칠 것이다.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존재감을 알리려면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아버지에게만 좋은 꼴이었다. 또 맞다가 죽을 테니까.

며칠 뒤 드레이드는 거슬리는 놈들이 찾아오면 가볍게 총으로 처리했다. 어렸을 때 잠깐 총을 만진 적이 있었다. 길에서 우연히 총을 줍고 무심코 총을 겨누었는데 그걸 본 노인이 다짜고짜 그에게 외쳤다.

“꼬마야, 총은 그렇게 겨누는 게 아니란다.”

노인은 드레이드에게 다가와서 총 쥐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는 단시간에 제법 자세가 나왔다. 한 번 보고 금방 익힌 것이다.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죽었어요.”

드레이드의 우울한 말에 노인은 짐짓 헛기침을 하고는 당부하듯 말했다.

“흠, 그럼 함부로 총을 쓰면 안 되겠구나. 넌 혼자니까 더 위험하다.”

“제게 부모님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래, 그리고 넌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단다. 이걸 잘못 쓰면 평생 감옥에 가서 나오지 못할 거야.”

드레이드는 그때 충격을 받았다. 어린 나이였기에 평생 감옥이라는 말에 그저 총을 노인에게 주었다. 만약 지금 감옥 간다면 드레이드는 꼼짝없이 죽을 것이고 지금 하는 일도 하지 못하기에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드레이드는 고작 그런 이야기에 덜덜 떨 나이가 지나갔다. 이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이고 아버지만 좋은 꼴이었다.

며칠 내내 그의 집에서는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웃집이 뭐라고 하면 그는 가볍게 웃으며 총을 들이밀었다. 대개 말보다는 무기가 더 편한 법이었다.

가끔 운이 없어서 다친 날이면 무의식적으로 여자애가 준 크림을 발랐다. 집에 약이 없기도 하고, 그 약 효과가 뛰어나서 더 그랬다. 그럴 때마다 여자애가 생각났다. 드레이드는 무심코 약통을 이리저리 살폈다. 약통에는 어떤 가문의 인장이 찍혀있었다. 까마귀가 날개를 펼치는 모양이었다.

까마귀 인장.

어딘가 본 기억이 있다. 지나가다가 언뜻 본 같다. 어떤 저택의 철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는 크림 통을 만지작거리다 이내 내려놓았다. 마침 집에 있는 과일이 어느 정도 떨어진 참이었다. 과일 가게 주인 정도면 이곳에 대해 잘 알 것이다.

다음날 드레이드는 아침 일찍 과일 가게로 갔다. 최근에 시장 바닥에서는 꽤 살기 있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들었소? 엘렌토 패거리가 거의 다 죽었다고 하더군.”

“거짓말 하지 말게. 그놈들이 다 죽을 리가 없어. 갑자기 마법사라도 나타났다는 건가?”

“마법사가 아니라 총질하는 사내라고 하더군.”

드레이드는 저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사람을 지나쳐 과일 가게로 걸어갔다. 그는 대개 과일로 식사를 때웠다. 가벼우면서도 금방 먹기 편해서 식사대용으로 제격이었다.

“안녕하세요.”

드레이드는 으레 그렇듯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과일 가게 주인은 반가운 손님을 맞은 듯 웃으며 맞아주었다.

“어서 오게. 이번에 꽤 맛있는 거 골라 와서 다 맛있을 거야.”

“아무거나 담아서 주세요. 사과는 빼주시고요.”

드레이드가 가볍게 말하자 과일 가게 주인이 아쉬운 듯 말했다.

“사과는 왜 안 사? 이번에 나온 사과는 많이 달고 맛있는데.”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것도 알레르기가 있어?”

드레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먹으면 붉은 반점이 올라와요.”

“지독하네. 그럼 이거라도 더 가져가.”

과일 주인은 친절한 단골손님에게 더 눈이 가서 이것저것 더 챙겨주었다. 요즘 시장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 소문도 알고 있지만 그녀는 엘렌토 패거리를 죽인 사람이 드레이드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사실 그런 소문은 시장 바닥에서 꽤 좋은 이야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 더 나쁜 놈들이 위세를 떨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다. 흉흉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등장할까봐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과일가게 주인은 드레이드를 딱하게 보았다. 그녀가 보기에 드레이드는 성실하게 사는데 왠지 모르게 딱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늘 얼굴에 거뭇하게 석탄을 묻히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랬다. 더구나 그가 이걸로 식사를 때운다고 할 때 그녀는 그런 마음이 더욱 들었다.

“요즘 별 일 없으시죠?”

드레이드가 부드럽게 묻자 과일 가게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떠도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굳이 흉흉한 말을 그에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레이드는 과일가게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자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기 힘든 미소였다. 과일가게 주인은 드레이드를 보며 생각했다.

‘참 보기 드문 사람이야.’

드레이드는 항상 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웃으며 대했다. 과일가게 주인은 드레이드를 위해서 옆에 있는 비싼 과일도 몇 개 넣어주었다. 저렇게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데 안 챙겨주기가 그랬다.

드레이드는 과일 주인이 이것저것 담아주는 것을 보다가 가볍게 물었다.

“까마귀 인장은 어디 가문인지 아시나요? 그분께 도움을 얻어서 은혜를 갚고 싶은데.”

“네스 가문일 걸? 그분이 많이 이것저것 도움주시긴 하지. 그러고 보면 거기도 참 많이 딱해. 남편도 그렇게 떠나보내고. 딸도 그다지 살가운 성격도 아닌 것 같던데.”

딸이라는 말에 드레이드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딸이요?”

“거기 자식이 딸 밖에 없잖아.”

“혹시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상하고 집요한 질문이었지만 과일가게 주인은 드레이드의 예의 바른 미소에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엘리너 네스일 거야.”

그 말에 드레이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 넉넉히 담았어.”

과일 가게 주인은 보기에도 무거운 자루를 내밀었다. 드레이드는 예의 바르게 고맙다고 말한 뒤 꽤 큰돈을 내밀었다. 주인은 잠시 망설였다.

“과일값에서 한참 벗어난 것 같은데?”

“여태껏 저한테 맛있는 과일만 팔아주신 게 고마워서요.”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드레이드는 예의 바르게 과일가게 주인에게 다시 돈을 내밀었다.

“받아주세요.”

드레이드의 말에 과일가게 주인은 주춤거리면서도 냉큼 받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볍게 그곳을 떠낫다. 과일가게 주인은 그의 멀끔한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휴, 저렇게 사람이 좋아서 세상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면서도 그녀는 누가 뺏어가기라도 할까봐 재빠르게 돈을 넣었다.

엘레너 네스. 그녀의 이름은 처음 알았다. 드레이드는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까마귀 인장이 있는 저택을 찾아냈다. 그의 기억대로 커다란 철문에 까마귀 인장이 박혀 있었다. 드레이드는 가끔 그곳에 갔다. 아니, 가끔은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갔다.

그럴 때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엘리너는 볼 수 없었다. 그러다 그는 왜 자신이 자꾸 이곳에 오는지 생각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얼굴 보면서.

하지만 찾아갈 때마다 엘리너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곳에 찾아갔다.

어떤 날은 운 좋게 엘리너를 봤다. 하지만 드레이드는 선뜻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의 옆에 있는 사람은 물론 그녀조차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이드는 엘리너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차림을 살펴봤다. 낡은 셔츠에 바지는 흙먼지가 묻어있었다. 아마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에도 자신은 창피한 차림이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었다.

총을 쏠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왠지 모르게 엘리너 앞에서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는 멀리서나마 지켜봤다. 엘리너를 지켜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뛰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드레이드는 선뜻 나서지 못했다. 어떤 날은 옷을 멀끔하게 입고 가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이내 접었다. 그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을 것 같아서였다. 다행인 건 엘리너가 저택으로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 하나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드레이드는 기다렸다. 엘리너가 한 번쯤 이곳을 쳐다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엘리너가 그를 다시 본 건 몇 주가 지난날이었다. 그날은 추웠다. 무도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엘리너는 저택 앞에서 내렸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고 싶었기 때문이다. 답답한 무도회에서는 이런 공기를 느끼지 못했다.

차분히 공기를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언뜻 파란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다.

“어, 넌?”

엘리너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그때 그렇게 마주치고 기억에 꽤 오래 남았는지 눈만 마주쳤는데도 그 사람이라는 게 떠올랐다. 그도 놀랐는지 잠시 멈칫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엘리너에게 걸어왔다. 그땐 거의 누워있다시피해서 몰랐는데 그는 꽤 키가 컸다.

엘리너는 자연히 그를 올려다봤다. 그는 엘리너의 얼굴을 잠시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고마웠어.”

어두운 밤인데도 그의 파란 눈동자는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그때 본 것처럼 꾀죄죄했다. 무엇보다 그가 이렇게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할 줄 몰랐다. 엘리너는 당황해서 잠시 바라봤다.

그 시선이 민망한지 그가 말했다.

“네 말대로더라. 그걸 바르니까 맞아도 안 아파.”

그때의 반항기 있는 눈빛은 없었다. 정말 자신의 도움이 고마워서 그 말이 진심으로 나온 것 같았다. 그의 말에 엘리너는 기분이 묘했다. 그 순간에는 작게 후회를 했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 꽤 잘한 일이었다.

‘결국 어머니의 말이 맞은 건가.’

엘리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그에게 말했다.

“혹시 키키드 크림이 필요하면 말해. 우리 저택에 아직도 많이 쌓여있거든. 그나저나 이젠 멀쩡해 보이네?”

“덕분에.”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선을 피했다. 언뜻 그의 귓불이 붉은 게 보였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운데 옷차림이 가벼운 것 같았다.

“그럼 갈게.”

그는 고맙다는 말만 하러 온 건지 가볍게 몸을 돌렸다. 엘리너는 키키드 크림이 잔뜩 담긴 자루를 떠올렸다. 아직도 그 자루는 그대로였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다. 그럴수록 어머니의 잔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엘리너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외쳤다.

“잠깐만!”

그가 돌아봤다. 엘리너는 그에게 조금 걸어가서 말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줄래? 어디 가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줘.”

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이 시간에 바쁘지 않은 듯 보였다. 엘리너는 얼른 철문으로 뛰어갔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뒤를 돌아서 확인했다. 다행히 그는 엘리너를 기다려주는 눈치였다.

엘리너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정원을 가로질러서 저택 안으로 거의 뛰다시피 들어갔다. 예상한 것과 같이 방안에는 커다란 자루가 제 위치를 바꾸지도 않고 견고하게 있었다. 엘리너는 키키드 크림이 가득 든 자루를 들고서 방을 나갔다.

무게가 조금 있는 터라 발걸음은 자연히 아까보다 느려졌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대문을 나갔을 때 엘리너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자루를 내밀었다. 그러면서도 자루를 들고 오는 게 힘들었는지 약간 숨이 찼다.

“뛰어온 거야?”

“응?”

엘리너가 묻자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곤 자루를 보면서 말했다.

“이건...”

“아, 이건 우리 집에 많아서.”

엘리너는 그에게 자루를 내밀었다. 그는 떨떠름한 것 같으면서도 선뜻 자루를 받았다.

“너무 많아서 주는 거야.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고마워.”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엘리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술을 뗐다.

“잘 가. 또 필요하면 말해.”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러곤 몸을 돌렸다. 엘리너는 그가 걸어가는 걸 잠시 바라보다가 저택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옅은 후회도, 괜히 오지랖을 부렸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서 기분이 좋았다.

엘리너는 어머니의 말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것 같았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하고 좋은 기분이라니. 더구나 고맙다는 말까지 들을 줄 몰랐기에 더 그랬다. 엘리너는 기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좋았던 기분도, 어머니가 멀쩡하던 시간도.

몇 년 후에 누군가 가문의 목걸이를 훔쳐가면서 엘리너는 한순간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정말 드레이드인가?’

그때를 떠올려도 엘리너는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무 상자 안에 있는 크림 통은 분명 그때 나온 통이었다.

‘그걸 왜 거기에 둔 거지?’

정말 소중한 거라도 된 듯이 말이다. 그때 전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너는 상념을 잊고 전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의뢰소로 가자 키가 커다란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침 엘리너를 봤는지 크게 손을 흔들었다.

“엘리너 님!”

엘리너는 한숨을 내쉬었다. 매키브였다.

“아니 왜 아침부터?”

엘리너가 혼잣말을 할 새도 없이 그가 엘리너 근처로 뛰어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리너는 떨떠름하게 말했다.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전 아침잠이 별로 없거든요. 마침 피티가 부탁한 마법구도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서요.”

매키브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한 건지 초록색 마법구를 들어올렸다. 찰랑거리며 마법구들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지 지독한 마법구 판매원이었다. 저렇게 많은 걸 들고 다니면서 무겁지도 않나.

엘리너가 그의 옷에 달려있는 마법구를 보자 매키브는 활짝 웃었다.

“혹시 끌리는 마법구 있으신가요?”

그 말에 엘리너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곤 빠르게 의뢰소 문을 열었다. 아직 피티는 오기 전인 것 같았다. 항상 피티가 먼저 의뢰소 문을 열었는데 오늘은 늦는 모양이었다.

엘리너는 책상으로 걸어가서 추적기를 찾았다.

드레이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나침반처럼 생긴 추적기를 동원해야했다. 그래야 그가 일일이 어디 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너가 부지런히 책상을 뒤적거리며 있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들렸다.

“뭘 찾으세요?”

언제 왔는지 매키브가 호기심 넘치는 눈빛으로 엘리너를 바라봤다.

“추적기요.”

엘리너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러곤 다시 서류를 뒤적거리던 때였다.

“혹시 이거 찾으세요?”

어떻게 찾았는지 매키브가 추적기를 엘리너에게 내밀었다.

“어디서 찾았어요?”

“여기 있던데요?”

매키브는 자신 앞에 있는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엘리너는 허리를 숙여 그 근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때 매키브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찾는 건 잘하거든요.”

“...”

엘리너는 할 말을 잃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쨌든 고마워요.”

그러곤 잽싸게 그에게서 추적기를 가져갔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추적기 정도 동원할 정도면 꽤 큰일 같은데.”

매키브는 호기심 넘치는 눈으로 바라봤다. 이상하게 그는 이런 면에서 눈치는 빠른 것 같았다. 추적기는 평소에 잘 쓰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심어놓기도 어려웠고 다시 수거하기도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나 걸릴 위험 때문에 주로 쓰지 않았다.

“제 일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엘리너는 추적기를 작동하면서 말했다.

“관심이 많아서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엘리너가 고개를 든 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엘리너 님!”

피티가 크게 외치면서 들어왔다. 엘리너는 매키브의 표정을 보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피티는 늦은 게 죄인 것처럼 표정이 안 좋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엘리너가 묻자 피티의 안색이 더 안 좋았다.

“아, 무슨 일은 아니고 그냥 제가...”

“늦잠 잤구나?”

그때 매키브가 말했다. 피티는 절망한 듯 매키브를 바라보다가 엘리너에게 변명하듯 말했다.

“죄송해요, 엘리너 님. 제가 어제 마법구 설계를 너무 생각 없이 오래 했나 봐요.”

“괜찮아요. 늦잠이야 잘 수 있죠.”

엘리너는 아무렇지 않았다. 피티는 워낙 성실한 조수였고 이렇게 늦은 적도 별로 없었다.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피티는 정말 다행인 것처럼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매키브가 옆에 가자 뭔가 서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엘리너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왜? 솔직한 게 좋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엘리너 님이 혹시 악덕 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악덕이라니요!”

그때 엘리너는 힐끔거리는 시선을 느꼈다. 말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모른 척하는 게 민망했다. 하지만 엘리너는 티내지 않았다. 티내는 것이야말로 더 민망한 짓이었다. 엘리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추적기를 이리저리 만졌다.

“그럼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휴, 됐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와 동시에 추적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엘리너는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추적기에 드레이드가 잡힌 것이다. 이제 이 빨간불만 따라가면 드레이드를 찾는 건 시간문제였다.

엘리너는 피티를 돌아봤다. 혼자 추적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였다. 추적기에 간혹 위치를 계산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엘리너는 셈에 약했다.

그렇다고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시각각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고 살펴야 했는데 혼자하면 상황이 꼬이기 일쑤였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 빠르게 위치를 계산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피티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전화를 받는 내내 목소리도 점점 낮아졌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엘리너는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들어맞았다.

“엘리너 님.”

피티의 목소리는 난처함이 묻어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제가 하루 종일 재판소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이 그렇게 꼬였어요?”

피티는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대놓고 방해하는 꼴이었다. 일이 그렇게나 꼬이다니. 엘리너는 손에 쥔 추적기를 바라봤다. 빨간불은 아직 근처에 있었다. 하지만 추적할 수 있는 경계 끝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드레이드를 놓칠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추적해야하는데...”

“추적이요?”

“요즘 핀 은행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추적해야할 것 같아서요.”

엘리너가 말하자 피티가 그제야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피티는 엘리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재판소에서는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저희가 준 증거가 거의 폐기될 수준이라고 해서요.”

엘리너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마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매키브가 말했다.

“혹시 조수 필요하세요?”

엘리너가 놀라며 그를 바라보자 그는 활짝 웃었다.

“제가 필요하면 써도 되는데.”

엘리너는 순간 혹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키브와 마냥 함께 갈 수는 없었다. 거의 3일 동안이나 같이 있어야 하는 길이었고 그가 이 일에 얼마나 잘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매키브가 이런 일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엘리너는 불쾌했다.

아무래도 남편 일이었기 때문에 사생활이 생판 남에게 노출되는 기분이었다.

“엘리너 님 제가 생각해도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침 피티가 말했다. 그녀는 그 방안이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듯 엘리너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건...”

“제가 껄끄러우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매키브는 시무룩하게 엘리너를 바라봤다. 눈빛만 보면 순진하면서도 별 이상을 없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엘리너는 꺼림칙했다. 왠지 모르게 매키브가 불편하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추적기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엘리너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내렸다. 추적기에서 빨간불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기껏 드레이드에게 결혼 2주년 기념일에 줄 선물까지 미리 주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도 괜찮은가. 하지만 매키브와 단 둘이 가야했다. 엘리너는 매키브를 바라봤다. 그는 엘리너의 말을 기다리는 듯 눈을 빛내고 있었다.

정말 매키브와 단 둘이?

그렇다고 지금 이 기회를 모두 포기한다면..., 그것 또한 손해였다. 어쩌면 이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일지 몰랐다. 꺼림칙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누구 탓이라면 모두 드레이드 탓이었다. 애초에 그가 이렇게 일을 숨지지 않았으면 낯선 사람과 같이 갈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엘리너가 입을 열었다.

“좋아요.”

엘리너는 매키브에게 말하고는 짐을 챙겼다. 도청 장치부터 자잘한 짐까지 꽤 많았다. 하지만 그다지 부피 있는 짐은 아니어서 들고 다니기에는 불편함은 없었다.

“도와드릴까요?”

엘리너가 가방에 짐을 담고 있을 때 매키브가 다가왔다. 엘리너는 고개를 내저었다.

“전 괜찮아요. 그나저나 3일 동안 가는 건데 괜찮겠어요?”

“네, 3일이나 가서 더 즐거운데요.”

“챙길 건 없어요?”

엘리너가 말하자 매키브는 자신의 옷을 이리저리 들어보였다. 그럴 때마다 경쾌하게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시다시피 전 늘 이 옷에 필요한 걸 넣고 다니거든요. 일주일이라도 끄떡없어요.”

하긴 매키브는 마법구 방문 판매원이었다. 엘리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짐을 쌌다. 짐을 거의 다 싸갈 때였다. 매키브는 신난 듯 곧장 문 쪽으로 걸어갔다.

“엘리너 님, 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는 마치 이게 여행이라도 떠난 듯 설레는 얼굴이었다. 엘리너는 정말 이게 맞나 생각하다가도 이내 그런 마음을 접었다. 지금은 뭘 가릴 데가 아닌 것 같았다.

밖에는 이미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엘리너가 미리 부른 마차였다. 주로 이런 일에 적합한 마차였는데 마부도 엘리너의 일을 대강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엘리너와 줄곧 같이 일해 온 마부였다.

“어서 타요.”

엘리너가 말하자 매키브가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너는 마부에게 위치를 알려주고는 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매키브는 마차 안이 신기한 듯 흥미로운 눈빛으로 둘러봤다.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한 것 같았다.

“엘리너 님, 자주 이렇게 다니세요?”

매키브가 여전히 마차 천장을 훑어보면서 말했다.

“가끔이요.”

엘리너는 매키브를 바라보다가 마차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 저희는 어디 가는 거예요?”

“델프스로 갈 거예요.”

“델프스라면 황태자의 별장이 있는 곳이요?”

“네.”

“재미있겠네요.”

매키브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엘리너는 이쯤에서 진지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희는 여행가는 게 아니라 추적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노는 게 아니라 일이고요.”

엘리너가 당부하자 매키브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미소를 지을 때마다 엘리너는 옅은 두통을 느꼈다. 왠지 모르겠지만 꺼림칙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매키브가 엘리너를 불렀다.

“엘리너 님.”

“네.”

“마법구는...”

“안 사요.”

순간 매키브가 웃었다. 엘리너는 그가 왜 웃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웃어요?”

“아, 이제 마법구 사시냐고 묻는 거 그만한다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엘리너는 약간 민망한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곤 추적기를 꺼내서 바라봤다. 다행히 드레이드도 핀 은행에서 지금쯤 출발했는지 얼추 따라잡을 만한 거리였다.

“그런데 지금 추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매키브의 입에서 드레이드에 대한 말이 나오자 엘리너는 어딘가 기분이 이상했다. 무언가 들킨 느낌도 들었다. 애초에 매키브에게 뭔가를 숨긴다는 것도 우스웠는데 말이다.

“아는 사람이에요.”

매키브에게까지 사생활을 모두 알리고 싶지 않기에 그저 간단하게 말했다. 매키브는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가볍게 물었다.

“아는 분을 추적하는 건 꺼림칙하지 않으세요?”

“...꺼림칙하긴 하죠.”

그 순간 엘리너는 진심을 말했다. 아무래도 남편을 이렇게까지 추적한다는 게 옳은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가는 것도 무리였다. 그를 이렇게까지 추적해서 알지 못하면 영원히 모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냥 엘리너의 짐작이 그랬다. 드레이드는 죽어도 진실을 말해줄 것 같지 않았다. 엘리너는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매키브가 다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까와 다르게 약간은 진지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인데요?”

그 분위기에 동화된 건지 엘리너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음, 이 이야기 해드리면 절 이상하게 보실 것 같은데...”

이미 엘리너는 그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다. 꺼림칙하고 불편했으니까. 하지만 당사자 앞에 그걸 얘기한다면 좋을 게 없었기에 그저 가만히 있었다. 매키브는 눈치 빠르게도 엘리너의 순간 표정을 읽고는 말했다.

“설마 엘리너 님 벌써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건 아니죠?”

엘리너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너무나 당황해서 손짓이 과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엘리너가 미소까지 지으면서 말하자 매키브는 그나마 안정되었는지 환하게 웃었다.

“그래도 고마워요. 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들은 저를 꽤 가볍게 보거든요. 뭐, 저도 이해가 가긴 가요.”

그러곤 그는 씨익 웃으면서 엘리너에게 허리를 숙였다. 그와 함께 찰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엘리너 님도 절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러우셨죠?”

지금도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나 엘리너는 고개를 내저었다. 이쯤 되면 매키브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그는 그대로 엘리너와 눈을 맞췄다. 엘리너는 뻘쭘하고 민망해서 눈을 깜짝였다.

그때 매키브가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순간 넋을 빼놓을만한 완벽한 미소였다.

“고마워요, 엘리너 님.”

그러곤 매키브는 느긋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뭐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절 싫어하는 눈빛은 보이지 않아서요. 저 보기보다 마음 약하거든요.”

“...”

“전 엘리너 님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낯선 사람에겐 낯을 많이 가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절 잘 아네요.”

“그래요? 하긴, 제가 마법구를 판매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잘 파악하나 봐요.”

매키브는 순진한 웃음을 지었다. 마치 그 일이 뿌듯하다는 미소였다. 엘리너는 순간 궁금했다. 정말 매키브는 그 일을 좋아하는 걸까? 그래도 한 번쯤은 싫은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힘들지 않아요?”

매키브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힘든 게 전혀 없는 듯 보였다.

“전혀요, 오히려 재밌어요. 사람들 반응이 제각각이거든요.”

“적성에 맞는 일 하셔서 좋으시겠어요.”

“네, 가끔 이유 없이 행복해요. 그런데 엘리너 님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예외였어요.”

“예외요?”

“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땠는데요?”

엘리너가 호기심을 드러내며 묻자 매키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유일하게 제 마법구를 안 사주신 분이시죠.”

“...”

“원래 대개 제가 한 번 사달라고 하면 다들 하나씩은 사주시거든요. 그런데 엘리너 님은 예외였어요.”

“마법구 판다는 말 더는 안한다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은 괜찮지 않아요?”

엘리너는 그만 할 말을 잃었다. 아마 다들 마법구를 사준 것도 그의 잘생긴 미소 때문일 것이다. 솔직히 엘리너도 그의 미소에 약간 넋을 잃긴 했었다. 하지만 단 몇 초였다. 딱 거기까지일 뿐이었다.

“혹시 그동안 마법구 파는 게 쉬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들 하나씩은 사주셔서 저 실적도 꽤 높아요.”

그럼 그렇지. 엘리너는 다 안다는 표정으로 매키브를 바라봤다. 저렇게 얼굴을 믿고 마법구를 파니까 실적이 좋은 건 당연할 것이다.

“아마 다들 그쪽 얼굴 보고 산 걸 거예요.”

“그래요?”

“네.”

엘리너는 무심하게 대답하면서 추적기를 바라봤다. 붉은 빛이 여전히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이 정도 속도면 딱 적당했다.

“그럼 엘리너 님은 어때요?”

“뭐가요?”

“저 같은 얼굴을 싫어하시나요?”

엘리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매키브는 엘리너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순진무구한 눈빛이었다. 마치 주인을 본 강아지의 눈빛 같았다. 저렇게 눈을 빛내는 것도 다들 수업을 받는 건가. 엘리너는 무심하게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다지 싫은 건 아닌데...”

“그럼 됐어요.”

“뭐가요?”

“엘리너 님이 절 싫어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게 그런 말은 아닌데요.”

“그럼 제가 싫으세요?”

매키브가 다소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너는 난처한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 같아서 난감했다. 갑자기 시험에 드는 기분이 들었다. 더구나 매키브는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 게 어려웠다.

결국 엘리너는 간단하게 말했다.

“아니요.”

“다행이다.”

매키브는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환하게 웃었다. 엘리너는 그런 반응이 왠지 꺼림칙해서 왼손을 들어올렸다. 네 번째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결혼반지가 반짝였다.

“저 결혼했어요.”

“알아요.”

“알면 됐고요.”

엘리너는 다소 민망한 기분을 느끼며 손을 내렸다. 그러곤 추적기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 슬쩍 매키브를 살펴봤다. 그는 아까보다 기분이 더 좋은 것처럼 보였다. 마차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했다.

‘결혼반지까지 보여줬으니까 괜히 집적거리는 건 아니겠지.’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으나 엘리너는 그가 왠지 모르게 꺼림칙했다. 순간순간 알 수 없는 말을 내던지는 것도 그랬다.

매키브와 오는 건 아무래도 잘못된 선택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으나 이내 생각을 거두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었다. 엘리너는 다시 추적기에 집중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 목표는 드레이드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것이었다. 엘리너는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었다.

어느새 델프스에 도착했다. 휴양지답게 주변 분위기는 무척이나 밝았다. 바다까지 있어서 드레이드를 추적하는 것만 아니었다면 엘리너도 생각을 달리할 만큼 매력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엘리너는 마음을 다잡았다. 추적기의 붉은 빛은 라프틴 호텔에 멈춰있었다.

“도착했습니다.”

마부는 눈치 있게도 호텔의 뒷문 쪽으로 마차를 세웠다. 호텔 뒤쪽이라 그런지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엘리너는 마차에 내려서도 추적기에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드레이드가 완전히 그 자리에 멈췄는지 숫자가 바뀌는 속도라 현저히 느렸다.

엘리너는 재빠르게 말했다.

“매키브, 위치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네, 뜨는 숫자 바로 불러주시면 계산할게요.”

엘리너는 추적기에 뜬 숫자를 불렀다. 간혹 숫자가 뒤바뀌어서 빠르게 계산해야했다. 매키브가 위치를 계산하는 동안 엘리너는 주변을 둘러봤다. 드레이드는 이 호텔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프틴 호텔은 델프스에서 최고급 호텔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핀 은행에서의 드레이드의 위치는 말단 은행원은 아닌 것 같았다. 이곳은 숙박비도 어마어마했는데 말단 은행원에게 그런 숙박비를 줄 리 없었다.

드레이드는 자신이 유능해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었다.

‘그럼 어느 정도 핀 은행에서 위치는 견고하다는 뜻인데.’

왜 그런 것까지 드레이드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니, 은행에서 어떤 직급인지 말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걸 숨길 만큼 엄청난 건가?

엘리너는 처음 드레이드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어쩌면 그때 그가 말단 은행원이라서 더 편한 것 같기도 했다. 만약 드레이드가 핀 은행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면 결코 엘리너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편하고 꽤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드레이드가 가까운 핀 은행에서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은행원이라는 말을 듣고 엘리너는 자연히 그에게 말을 많이 했었다. 물론 그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랬긴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마자 엘리너는 기분이 이상했다.

‘설마 드레이드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동안 진짜 직급을 숨긴 건가.’

엘리너가 잠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매키브가 외쳤다.

“1109호가 뜨는데요? 방 번호를 보니까 로열층 같아요.”

로열층은 호텔에서 가장 높은 층이었다. 방도 몇 개 없었는데 지금 그런 방을 구하기에도 어려웠다.

엘리너는 높은 호텔 건물을 바라봤다. 황태자가 별장을 짓기 전 주로 머무른 호텔이었다. 엘리너는 높은 층까지 보다가 고개를 내렸다.

“우선 방부터 구해야겠어요.”

엘리너가 말하자 매키브가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따라왔다. 그와 함께 걸을수록 찰랑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다. 혹시 몰랐다. 안 그래도 예민한 상태인데 찰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귓가를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엘리너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키브, 그 옷 바꿔 입을 생각 없어요? 아니면 마법구라도 어디 놔두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이 거슬리나요?”

“저희는 최대한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순간 매키브가 걸음을 멈췄다. 그러곤 그는 가볍게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는 이리저리 움직이는가 싶더니 엘리너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죠?”

찰랑거리는 소리가 옅게 나긴 했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다. 매키브는 마법구가 부딪히면서 찰랑거리는 소리를 포기 못하는 듯 보였다. 엘리너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법구가 그렇게 좋으세요?”

엘리너가 묻자 매키브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모르는 사실을 수집해주잖아요. 그리고 꽤 예쁘게 생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들고 다니면 무겁지 않으세요?”

“별로 무겁지는 않아요. 오히려 든든해요.”

매키브는 옷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마법구를 뿌듯한 듯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했다. 저렇게 좋을까. 엘리너는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봤다. 그러다 순간 걸음을 멈췄다.

엘리너는 매키브의 팔을 잡았다.

“이리 와요.”

엘리너가 갑작스럽게 끌자 매키브는 의아한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엘리너가 본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떤 남자가 있었다. 멀리서만 봐도 멀끔한 게 느껴졌다. 매키브는 그쪽을 보다가 엘리너에게 시선을 돌렸다.

엘리너는 매키브와 함께 건물 옆쪽으로 왔다. 엘리너가 놀란 이유는 간단했다. 드레이드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드레이드는 주로 듣는 쪽이었다. 상대방은 드레이드에게 책잡힌 거라도 있는지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엘리너는 추적기를 확인했다. 숫자가 조금 바뀌어 있었다. 그는 방에 간단히 무언가를 두고 내려온 모양이었다.

“저 분이세요?”

이제 와서 달리 부정할 방법이 없었기에 엘리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키브는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입을 뗐다.

“꽤 높으신 분 같네요.”

곧 마차가 왔고 그 사람이 마차 문을 열어주자 드레이드는 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마차는 쏜살같이 사라졌다. 엘리너는 추적기를 확인했다. 델프스는 비교적 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를 놓치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우선 지금 필요한 건 드레이드와 가장 가까운 방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분명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까. 방을 구한 뒤 드레이드를 뒤따라가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안 따라가세요?”

매키브는 이제 막 사라진 마차 쪽을 가리켰다. 엘리너는 고개를 흔들었다.

“우선 이곳에 방을 구하고요. 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호텔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마차에서 내렸다.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꽤 많았다. 더구나 지금은 사람들도 붐빌 시기라서 방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호텔 안은 밖보다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붐비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엘리너는 겨우 자신의 차례에 와서 말할 수 있었다.

“1109호 근처 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무언가를 살피더니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방이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다른 분의 예약으로...”

그때 가만히 있던 매키브가 엘리너에게 말했다.

“엘리너 님, 이건 저한테 맡기세요.”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요?”

엘리너는 의문을 드러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을 했고 그 사람이 순순히 방을 내줄 리도 없었다. 무엇보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매키브는 활짝 웃으며 자신의 옷을 들어올렸다. 미세하게 찰랑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엘리너 님, 저 꽤 실적 좋아요.”

“설마 여기서 마법구 파는 건 아니겠죠?”

매키브는 웃음을 짓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제가 늘 하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너는 반신반의하며 매키브를 내버려두었다. 어차피 엘리너에게 손해는 없었다. 무엇보다 값이 얼마를 나가든 드레이드 주변의 방을 구해야했다. 그래야 이곳까지 온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키브는 직원의 이름표를 확인하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데미드 님, 혹시 예약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손님의 보호를 위해서...”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매키브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누구나 한 번쯤 보면 넋이라도 나갈 미소였다. 엘리너도 한 번 본 미소였다. 한 번만 마법구를 사달라고 할 때 봤던 미소였다.

‘저걸 저기에서도 써먹는구나.’

새삼 매키브는 자신의 미모가 어떤지 잘 아는 것 같았다. 직원은 매키브의 미소를 보고는 확실히 넋을 잃었다. 단호하게 말하던 직원은 갑자기 할 말을 잃은 듯 더듬거렸다.

“어, 하지만 이건...”

“혹시 알아요? 그 방에 예약하신 손님이 범죄자일지. 그래서 확인 차 보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엘리너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절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엘리너는 적잖이 놀랐다. 직원은 마치 매키브의 미소에 홀린 듯 그에게 벌써 예약 명단을 보여주고 있었다. 매키브는 자연스럽게 명단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직원은 아까처럼 넋을 놓고 매키브를 바라봤다.

엘리너는 왠지 모르게 죄를 지은 것 같아 꺼림칙했다.

“잠시 전화 좀 빌려도 될까요?”

매키브는 뻔뻔스럽게도 직원에게 말했다. 이미 매키브에게 홀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주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돌렸다.

엘리너는 다른 의미로 매키브를 바라봤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주도권을 잃지 않는 듯 당당했다. 심지어 그가 하는 말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라프틴 호텔에 예약하셨나요? 아, 다름이 아니라...”

매키브는 직원에게 눈을 찡긋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러곤 잠시 고개를 돌려서 직원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손을 가리며 말했다.

“지금 그 방에 수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예약하신 방을 바로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신 다른 방이 있는데 예약을 변경하시겠어요?”

몇 번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대안을 내놓았는지 매키브는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곤 그는 직원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 분이 예약을 다른 방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방은 있나요?”

다행히 남은 방이 몇 개 있었는지 일은 꽤 거침없이 뚫렸다.

“2500 말크입니다.”

직원이 말했다. 이젠 돈만 지불하면 드레이드 근처의 방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하지만 엘리너는 가방을 뒤지다가 그 만한 돈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물론 드레이드가 준 백지 수표가 있었지만 이런 일에 그의 돈을 쓴다는 게 영 꺼림칙했다.

엘리너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매키브가 말했다.

“여기요.”

엘리너는 깜짝 놀라 매키브를 바라봤다. 이미 직원은 매키브에게서 돈을 받고는 계산을 완료한 후였다. 그는 활짝 웃고는 엘리너에게 말했다.

“엘리너 님, 저 돈 꽤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직원이 남은 거스름돈을 지불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자신의 옷에 있는 마법구를 들어올렸다.

“혹시 필요하시면 마법구 사시지 않을래요?”

매키브는 자연스럽게 거스름돈을 가져가면서 보랏빛이 나는 마법구를 내밀었다.

“이 마법구는 일반인들도 그저 장식용으로 많이 써요. 특히 햇빛이 비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직원은 이미 넋이 나간 채 매키브를 보고 있었다. 그때 매키브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엄청 예쁘다고요.”

“...얼만데요?”

직원은 이곳이 호텔이란 것도 잊었는지 자연스럽게 말했다. 엘리너는 이제 그만 매키브를 말리려고 그에게 말했다.

“매키브, 마법구는 그쯤해요. 저기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매키브는 슬쩍 뒤를 보고는 직원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직원이 아쉬운 듯 쳐다봤지만 매키브는 엘리너와 함께 그곳에서 나왔다. 사람들 몇몇이 매키브를 힐끔 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확실히 그는 뛰어난 외모를 가졌긴 했다. 그리고 그걸 제법 잘 쓰는 것도 알았고. 아니, 제법이 아니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었다.

“매키브.”

엘리너가 말했지만 옆에 있을 것 같은 매키브는 없었다. 엘리너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내 멈칫했다. 그는 호텔 프론트 앞에 줄 서고 있는 누군가에게 마법구를 팔고 있었다. 벌써 팔았는지 매키브의 손에는 돈이 들려있었다.

‘정말 실적이 높을 만하네.’

여기까지 와서 판매하다니. 그때 매키브는 엘리너를 발견했는지 손을 흔들고는 기분 좋은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제 실력 어때요?”

그는 마치 칭찬이라도 바라는 것처럼 한껏 기대하는 얼굴이었다.

“뛰어나긴 하네요. 여기까지 와서 마법구까지 파니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셔서.”

매키브는 다시 뒤를 돌았다. 마법구를 산 사람은 아직도 매키브의 얼굴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매키브도 활짝 웃으며 다시 손을 흔들고는 몸을 돌렸다.

“정말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아요.”

엘리너는 진심으로 말했다. 과연 매키브 같이 저렇게 마법구를 파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었다. 거기다 그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거의 매키브 하나 밖에 없을 것 같았다. 매키브는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전 이 일이 즐거워요.”

매키브는 주렁주렁 매달린 자신의 마법구를 살펴봤다. 몇몇 마법구는 이미 팔렸는지 자리에 없었다. 엘리너는 속으로 저 마법구를 오늘 안에 다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매키브 정도면 못할 일도 아닌 것 같았다.

엘리너가 자신의 마법구를 계속 지켜보는 걸 알았는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엘리너 님.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말에 엘리너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그 돈은 제가 갚을게요.”

“무슨 돈이요?”

“2500 말크요.”

“아, 갚지 않으셔도 돼요.”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갚을게요.”

“아니에요. 어차피 저도 여기에 오랜만에 다시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하는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나마 엘리너 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움이요?”

“네, 제가 민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엘리너 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고 있는데요.”

매키브는 환하게 웃으며 엘리너를 바라봤다. 엘리너는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꽤 큰돈인데요.”

“그럼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엘리너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이 꺼림칙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소원이 뭔데요?”

“델프스 해변가를 걸어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전 여기서 기다려도 되고...”

“아니요, 같이요.”

매키브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엘리너는 방어막을 만드는 것처럼 말했다.

“저 결혼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같이 그곳에 걸을 순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혼자서 걸으면 왠지 기분이 씁쓸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냥 저랑 걷는 것도 싫으세요?”

엘리너는 도저히 입이 떼어지지 않았다. 매키브는 마치 온 힘이 빠진 것처럼 어깨가 축 쳐져보였다. 심지어 그의 옷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마법구도 쳐진 것처럼 보였다. 엘리너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3일 동안 같이 일하게 될 텐데 벌써부터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면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분명 난감할 것이다.

“전 그냥 엘리너 님과 같이 걷고 싶은 건데, 다른 생각은 없어요.”

매키브가 다시 말했다. 엘리너는 난감한 얼굴로 입술을 짓씹었다. 해변가를 걷는 것뿐인데. 그리고 지금 매키브는 엘리너에게 조수 같은 역할이었다. 지금도 같이 다니고 있었고. 객관적으로 보면 나쁠 게 없었다. 결국 엘리너가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그럼 일이 어느 정도 끝나면 같이 걸어요.”

엘리너가 말하자 매키브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엘리너 님.”

매키브가 지나치게 좋아해서 엘리너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매키브도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혼자 걷는 것보단 같이 걷는 게 나아서 그러겠지.’

엘리너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다. 더 깊이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너무 피곤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엘리너는 추적기를 확인했다. 드레이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나저나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

매키브는 엘리너 옆에 서서 그녀가 보고 있는 추적기를 살폈다. 그는 추적기에 적힌 숫자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한 뒤 말했다.

“알페르노 카페네요.”

그 말에 엘리너가 고개를 들었다.

“계산 빠르네요.”

“뭘요, 제가 여기 온 이유잖아요.”

매키브는 활짝 웃었다. 그는 이상하게 아까부터 기분이 묘하게 좋아보였다. 엘리너는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마침 매키브는 엘리너의 시선이 닿는 걸 알았는지 오히려 엘리너와 시선을 더 맞추었다. 순진무구한 눈빛은 어쩐지 아까보다 반짝였다. 묘하게 정염이 깃든 느낌이었다.

엘리너는 눈을 깜빡였다. 어쩐지 전과 다른 분위기였다. 매키브는 눈도 피하지 않으면서 엘리너를 뚫어질 듯 바라봤다. 순간 엘리너는 민망한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 매키브가 말했다.

“마차 부를까요?”

“네, 그쪽으로 가야겠어요. 늦었어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엘리너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매키브도 별 생각이 없는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차를 불렀다. 잠시 후 이곳에 올 때 같이 온 마차가 섰다. 엘리너는 마부에게 말했다.

“알페르노 카페로 가주세요.”

마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채찍을 들었다. 곧 마차가 출발했다. 엘리너는 멍하니 마차 밖을 바라봤다. 호텔 주변이라서 그런지 해변가가 그대로 보였다. 정말이지 드레이드 일만 아니었다면 한 번쯤 빠져볼 만한 바다였다.

주변에는 놀러온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엘리너는 왠지 모르게 씁쓸함을 느끼며 추적기로 시선을 돌렸다. 여전히 추적기에는 그 자리 그대로였다.

드레이드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

‘여자는 아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일리는 없었다. 이제껏 드레이드는 엘리너에게 한결 같이 잘해줬고 다정했으며 많이 배려했다.

‘그래, 여자일리 없지.’

엘리너는 그렇게 단정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상하게 제라키드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엘리너 님도 조심하세요. 남편이 아무리 자상하고 다정해도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엘리너는 손을 만지작거렸다. 어느새 손에는 땀이 배어 나와서 축축했다.

“엘리너 님 어디 안 좋으세요?”

“...”

“엘리너 님?”

그제야 엘리너가 고개를 들었다.

“네?”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매키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서 엘리너의 얼굴을 살폈다. 갑자기 다가온 매키브에 엘리너는 당황스러워서 몸을 뒤로 뺐다. 그런데도 매키브의 시선은 엘리너의 얼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아까와 달리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엘리너는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에 몇 번 두드렸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것 맞으세요?”

“네.”

엘리너가 고개를 끄덕이자 매키브도 어쩔 수 없는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와 동시에 옅게 찰랑거리는 소리가 주변을 울렸다.

“혹시 속이 안 좋으시면 말하세요.”

매키브는 그렇게 말하면서 옷에 있는 주머니를 열었다. 그러자 못 보던 약이 계속 튀어나왔다.

“약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제가 방문 판매원이다 보니 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약 파는 곳이 없는 곳에 가는 날도 많은데 그땐 약을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녀요.”

매키브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엘리너는 새삼 매키브가 다시 보였다. 판매 실적이 좋은 이유가 있었다. 그는 꽤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 같았다.

“여기요.”

매키브는 흰 알약을 내밀었다. 엘리너는 선뜻 받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 시선을 얼추 짐작했는지 매키브가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할 때 가라앉히는 약이에요. 독약 아니고요.”

매키브가 가볍게 말하면서 다시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엘리너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다.

“제가 직접 먹여드릴까요?”

“아니요.”

엘리너는 단호하게 말하며 어쩔 수 없이 약을 받았다.

“그냥 가볍게 씹고 넘기시면 돼요. 물이 필요 없는 약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물을 안 가지고 다닐 때가 많아서요.”

엘리너는 어색하게 약을 씹었다. 그러자 특유의 쓴맛이 입안에 느껴져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꽤 쓰네요.”

엘리너가 말했지만 매키브는 대답이 없었다. 엘리너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딘가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매키브?”

엘리너가 부르자 그제야 매키브는 당황한 듯 표정을 정리하곤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하지만 그의 볼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덥네요.”

그는 어색하게 손부채를 만들며 마차 안을 둘러봤다.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엘리너가 중얼거리자 매키브가 멈칫하더니 이내 갑자기 옷에 매달려 있던 마법구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집중할 일이라도 필요한지 일을 새로 만들고 있었다. 마차가 꽤 흔들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팔에 매달려 있는 마법구를 모조리 내놓는데 성공했다.

“뭐 하세요?”

엘리너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여태껏 여유롭게 보이던 매키브에게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매우 바쁜 일을 한다는 듯 엘리너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 이 녀석들을 다시 매달려고요. 위치를 한 번씩 바꿔줘야 하거든요.”

엘리너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하긴 마법구 판매원이 아니니 완벽히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엘리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차 창밖을 보니 어느새 알페르노 카페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 멀리 카페의 상징인 커다란 나무가 언뜻 보였다.

엘리너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매키브, 얼른 마법구 다시 매달아야겠는데요.”

“왜요?”

“카페에 거의 다 왔어요.”

“벌써요?”

“네,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얼른 정리할게요.”

매키브는 다소 축 처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이 다소 민망한 듯 했다. 엘리너는 그가 능숙한 손길로 마법구를 매다는 것을 보다가 추적기에 시선을 돌렸다.

여전히 드레이드는 그 자리 그대로였다. 어쩌면 다행이었다.

“도착했습니다.”

마부는 카페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마차를 세웠다. 엘리너는 창밖을 통해서 혹시나 드레이드가 없나 살피다가 마차를 나왔다. 매키브는 빠르게 정리했는지 곧 마차에서 나왔다. 그가 나오자마자 옅게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그 사람이 이곳에 있는 거죠?”

매키브가 물었다. 엘리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적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아직 그대로였다.

“다행히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요.”

“안 들키도록 조심해야겠죠?”

매키브가 속삭이듯 엘리너에게 말했다. 엘리너는 걸음을 멈칫했다. 매키브가 꽤 가까이에서 말해서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네, 당연히 조심해야 해요. 혹시나 그 사람이 있나 잘 살피면서 가야 해요. 눈에 띄면 이제까지 한 게 다 헛수고니까요.”

“걱정 마세요. 피해 안 끼치도록 조심할게요.”

그가 다시 옆에서 속삭이자 엘리너는 그와 멀어지도록 살짝 걸음을 뗐다. 매키브가 의아하게 보자 엘리너가 말했다.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부담스러우셨나요?”

매키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차 안에서 본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이제야 여유로운 매키브의 모습 같았다. 엘리너는 순간 마차 안에서 잘못 본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 이내 생각을 그만두고 걸음을 뗐다.

지금은 드레이드에게 더 집중할 때였다.

카페 안은 꽤 사람이 많았다. 그래도 북적거리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엘리너와 매키브가 앉을 자리는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엘리너는 곧 익숙한 누군가를 찾았다.

드레이드였다. 그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선 신문을 보고 있었다. 확실히 드레이드는 다른 사람과 분위기가 달랐다. 마치 혼자만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힐끔거리는 시선이 보였다.

엘리너도 한때 저들과 같았다. 그녀도 그의 미모에 덜컥 반했으니까. 확실히 드레이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겉보기에도 그는 멀끔한 차림이었으며 힐끔거릴만한 외모였다. 한 번에 반할만한 외모이기도 했고. 더구나 은연중에 보이는 태도에도 배려가 묻어 있었다.

‘한 눈에 반할만했네.’

엘리너는 스스로 인정하면서 드레이드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 자리를 잡았다. 매키브도 그녀를 따라서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앉자마자 점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물었다.

“주문하시겠어요?”

“전 캐모마일 차요.”

엘리너는 먼저 말하고는 매키브에게 눈짓했다. 그는 곧장 밝게 대답했다.

“전 초코우유에 라벤더를 올려서 주세요.”

점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갔다. 엘리너는 의아해하며 매키브에게 말했다.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먹어보셨어요?”

“네.”

“그럼 제 것 오면 한 번 먹어보세요.”

“됐어요.”

엘리너가 질색하며 말하자 매키브가 재밌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엘리너는 다시 드레이드를 바라봤다. 그는 신문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옷을 보는 것 같았다.

‘얼룩이라도 묻었나.’

한참을 보기에 무슨 얼룩이 묻었나 싶었다. 그 순간 드레이드가 웃었다. 자세히 보니 그는 핀 클립을 보고 있었다. 드레이드는 웃으며 핀 클립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그걸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듯.

엘리너는 기분이 묘했다.

‘역시 드레이드가 말을 하지 못하는 온당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